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32호
2021년 12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아듀 2021~ 새해 또 만나요”



지난 12월 11일 열린 워싱턴 D.C. 동창회의 총회 겸 송년모임은 젊은 세대 동문들이 대거 참여해 활기를 띠었다. 왼쪽은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김찬(공대 68) 동문 부부의 볼룸 댄스. 정열적인 탱고 리듬에 맞춰 화려한 테크닉과 격정적인 몸놀림으로 집중 조명을 받았다. 사진=한정희(미대 81).
송년 특집=14~18면.

“국적은 바뀌어도 모교는 못 바꾼다”

‘한번 동문이면 영원히 동문’... 더욱 알찬 지면 꾸밀 터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모교는 못 바꾼다.”

동창회에서 흔히 듣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마치 서울대 캐치프레이즈처럼 쓰이고 있다.

누가 만들어 썼는지 알 길은 없다. 출처를 물어보면 대부분 어깨를 으쓱할 따름이다. 어떤 연유로 미국에 왔든 서울대를 나왔으면 어디를 가든 서울대 동문이라는 말일 터다. “한번 서울대 동문이면 영원히 서울대 동문”이라고 할까.

유추해 보건대 예전 텍사스에 살고 있는 어느 서울대 동문이 지어내지 않았나 짐작을 해 본다.

미국인들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시카고나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큰 도시 이름을 든다. 그러나 이른바 ‘텍산(Texan)’은 다르다. 그냥 텍사스에서 왔다고 말한다. 연방에 편입되기 전 독립국가였다는 우월감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밴 탓인지도 모르겠다.

모임이나 식당에서 만난 사람이 ‘텍산’이란 걸 알게 되면 텍사스 사투리가 먼저 튀어 나온다. 서로 ‘하우디(Howdy)’ 하며 인사를 주고 받고는 껴안는다. ‘안녕하세요(How do you do)’의 텍사스식 표현이라고 한다.

텍산들의 구호라고 해도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텍산들은 이처럼 어디서나 꼭 티를 낸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한 번 텍산이면 영원히 텍산(Once a Texan,

Always a Texan)’이다. 어디서 살든 텍산들은 푹푹 뭉친다는 것이다.

텍산들이 뭉치면 영향력이 실로 엄청나다. 이라크 전쟁의 약재에도 불구하고, 부시가 재선에 성공한 것도 어쩌면 텍사스 사람들 특유의 동류의식이 발동한 탓이라. 전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텍산들이 시쳇말로 ‘우리가 남이가’하며 부시에 몰표를 던져주다시피 했다.

결속력이 텍산만큼 강한 사람들도 드물다. 텍산 못지 않게 동료와 선후배 간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이 해병대다. 텍산 대신 머린을 넣으니 멋진 해병대 모토(motto)가 탄생했다. ‘한 번 해병이면 영원히 해병’이다. ‘always’를 ‘항상’이 아닌 ‘영원히’

로 옮긴 걸 보면 문장력이 뛰어난 분이 번역을 했지 싶다.

서울대 동창회 캐치프레이즈도 알고 보면 텍산과 해병대 구호와 일맥상통한다. 미국 어디서 살든 서울대를 나왔으면 영원히 동문이다. 동창회보는 ‘영원한 동문들’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다. 구독해 주신 동문님들의 올 한해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엔 더욱 알찬 지면을 꾸며 동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회보를 만들 것을 다짐한다. ‘진리는 나의 빛’은 회보의 편집방향이자 목표다.

Veri Tas Lux Meal!

동창회보 편집실

미주동창회 새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미군 수송선에 꿈을 신고...★

스코필드 박사 추천 ... 대한민국 제 1호 독성병리학 박사 취득 듀퐁 화학 연구소 근무, 70여 편 논문 발표해 권위 인정받아



**이기풍 박사
(수의대 50)**

10월호 동창회보를 읽고 며칠 밤잠을 설쳤다. 벌써 반세기가 훌쩍 넘었는데도 마치 어제 일 마냥 생생히 떠올랐다. 권영덕 박사의 '나의 인생노트'를 읽고 서다. 읽고 또 읽었다. 너무 감격해 가슴이 벅차 오르는 걸 느꼈다.

알고 보면 권 박사와 나는 미군 수송선 '동기'다. 1963년 인천에서 우리는 수송선 마이클호를 타고 아메리칸 드림의 꿈에 한껏 부풀었다.

전쟁이 끝난지 얼마 안됐던 때여서 정부는 유학생에 100 달러까지만 바꿔줬다. 경비가 턱없이 부족해 아내가 암시장의 소위 '딸라 아줌마'에게서 100 달러를 추가로 사서 양복 깊숙히 숨겨 바늘로 꿰맸다. 당시엔 불법이어서 단속에 걸리면 유학이 취소될까 두려워 얼마나 가슴을 조렸던지...

유학생 10여명

미군 수송선에 탄 유학생은 10여 명 남짓이었다. 식사는 뷔페식이었는데 그때 처음 비프 스테이크란 걸 먹어봤다. 세계 최빈국 출신의 유학생에게는 그야말로 신이 내린 음식이었다. 큼지막한 스테이크를 한 번에 두개나 먹어치웠다. 옆에 앉아 있던 미군 병사가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렇게 맛있냐'고 물은 게 지금도 기억난다.

수송선은 일본 도쿄를 거쳐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정박했다. 와이키키 비치의 훌딱 벗어제킨 여인들의 모습에 그만 눈을 감아버렸다. 여자들 앞가슴엔 고양이 눈과 비슷한 작으마한 가리개가 가는 끈에 매달려 있었다. 아래 중요 부위는 삼각형으로 된 작은 방패로 가려져 있을 뿐이었다. 아담과 이브가 사는 지상낙원이라고 할까.

한달 여에 걸친 '크루즈'는 샌프란시

스코에서 끝이났다. 이제부터 7년여를 나는 '이산가족'으로 살아야 했다.

이쯤에서 나의 성장기를 밝힌다. 내 모국어는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다. 오사카에서 태어나 중학교 2학년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미군의 공습이 거세지자 우리 가족은 고향인 제주도로 피란을 왔다.

당시 제주도에서 유일한 학교가 제주 농업학교다. 그렇다 보니 머리 좋은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 2학년으로 편입해 공부했다. 학교엔 농학과와 수의 축산학과 두 전공이 있었는데 주변의 권유로 수의과를 택했다. 내가 서울대 수의과 대학에 들어가게 된 배경이다.

를 어기고 위스콘신 대학에서 석 박사 과정을 밟았다.

스코필드 박사도 나중에 추천장을 써 주며 격려해 줬다. 훗날 나는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잠들어 계신 박사님께 큰절을 올리며 용서를 청했다.

공부 힘들어 '악몽'꿔

위스콘신에서의 생활은 한마디로 혹독했다. 지금도 가끔 꿈에 그 시절의 힘들었던 일들이 나타나 소스라쳐 놀라 깨곤 한다. 얼마나 공부가 어려웠으면 악몽을 꿨을까 싶다.

대학 측은 내게 물리학, 생화학,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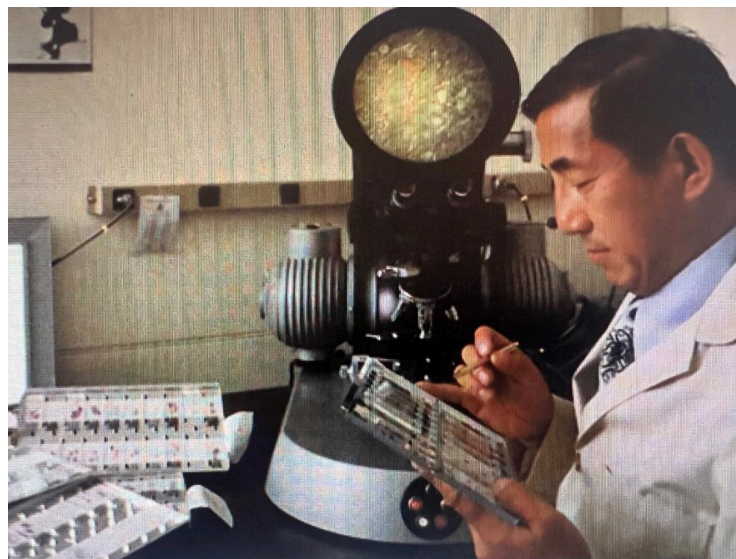
민국의 제 1호 수의병리학 박사다. 귀국하는 대신 미국에 남아 연구를 계속하기로 했다. 다행히 내 논문이 인정을 받아 듀퐁독성연구소(DuPont Haskell Laboratory)에 연구원으로 취업이 됐다.

나는 듀퐁이 개발한 제품 생산과정에서 독성물질의 누출 여부를 연구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듀퐁에서 근무하는 동안 70편이 넘는 논문을 유명 학술지에 게재해 이 분야에서 명성을 얻었다. 이와 함께 델라웨어 대학 겸임교수로 발령받아 후진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학자로서 인정은 받았지만 가족들을 희생시키고 얻은 결과물이었다고 솔직히 고백한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7년 동안이나 떨어져 살았고 이후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도 일이 우선이어서 가족과 함께 여행다운 여행을 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제 1차 한국정부 해외고급과학두뇌 선정 아내의 희생으로 일군 '아메리칸 드림'



듀퐁 독성연구소 시절 7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상패(오른쪽)를 받기도 했다.



1994년 듀퐁에서 은퇴한 나는 운 좋게도 조국의 부름을 받았다. 그해 한국정부가 처음 실시한 해외고급과학두뇌 초빙 프로젝트(브레인 풀)에 내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나를 포함해 모두 31명이 뽑혀 국내 연구소에서 기술고문을 맡았다. 기초과학 1명,

내가 유학의 길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스코필드 박사 덕분이였다. 11월호에 김수영 동문님이 쓴 '스코필드 박사와 에텔바이스'를 읽고는 스승님의 하해와 같은 은덕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나는 박사님을 배반했는데도 은혜를 베풀어주셨다.

당초 박사님은 내게 1년 동안의 유학만을 허가해줬다. 한국 사정이 급해 학위 딸 생각을 하지 말고 연수만 하고 돌아오라며 자신의 모교인 캐나다 토론토 대학 수의과대학에 단기 유학을 추천해 줬다.

당시 나는 늦깎이 유학생이었다. 나이가 33살이나 돼 마음이 조금했다. 내친 김에 박사학위까지 따 돌아가면 조국에 더 유익이 될 텐데... 스승님과 의 약조

학은 물론 의과대학에서 인체 병리학까지 수강해 학점을 취득할 것을 요구했다. 기초지식이 없던 나는 학부 학생들과 경쟁해야 했으니 그 고생이 오죽했겠는가. 지금도 그 공포 후유증이 남아 있어 나를 괴롭히곤 한다.

델라웨어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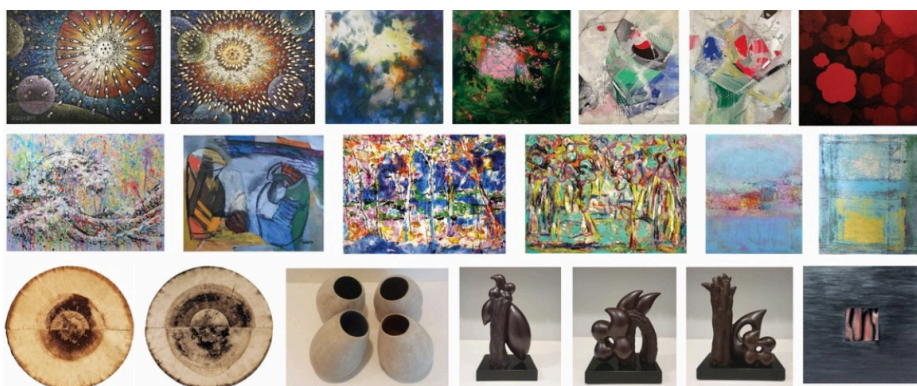
내 전공은 독성 병리학 분야다. 위스콘신 대학엔 당시 전자현미경과 특수 초원심분리기 등 첨단기기를 갖추고 있어 연구에 큰 도움을 받았다. 덕분에 여러 편의 논문을 독성병리학 학회지에 발표,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었다.

미국에 온지 5년만인 1968년 드디어 꿈에 그리던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한

기계소재 10명, 전기전자 정보 통신 5명, 화공생명공학 12명, 자원해양 2명, 에너지 1명 등이었다. 나는 한국화학연구원 안정성평가연구소에 배치돼 독성과 관련한 자문을 했다. 안정성평가연구소는 지난 2000년대 초 미국의 식약청(FDA)과 환경보호청(EPA)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 공인을 받음으로써 세계적인 연구소로 거듭났다. 나는 미국에 유학와 많은 것을 이뤘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늘 앞선다. 아내는 평소 "당신은 하고 싶은 일을 다했으니 오늘 죽는다고 해도 아무도 불쌍하다고 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었다. 이제는 고인이 된 아내를 저 세상에서 만나게 되면 뭐라고 사과하며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모르겠다.

서울대 새해 달력 나왔다

미대 동문작가들의 작품 실려



새해 달력에 실린 미대 동문작가들의 작품. 대부분 지난 5월 동창회 기금마련 전시회에 출품됐다.

2022년 새해 서울대 달력이 나왔다. 캘린더에는 미술대학 동문 작가들의 작품이 실렸다. 달력은 지난 5월 남가주총동창회 주관으로 열린 동창회 기금마련 미대 전시회 및 옥션행사에 작품을 기부한 동문 작가들과 옥션 작품을 구입한 미술 애호가들의 협조로 제작됐다.

최용준 남가주총동창회 회장은 “달력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옥션 행사 및 캘린더 제작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미대 동문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함께 모였다”며 “단순한 달력이 아닌 그 의미와 가치가 더욱 빛나는 예술 화보집”이라고 말했다.

미대 동문작가들의 작품으로 제작된 서울대 달력은 올해로 6번째다. 달력 제



작과 배포를 책임맡은 한귀희(미대/공대 68) 동문은 수량이 제한돼 서둘러 주문할 것을 당부했다. 달력은 1개당 10달러. 배송비는 별도다.

문의: 한귀희(805-300-7977), 한석란(818-808-8185), 손영아(951-541-3188)

의대 연례 학술대회 개최

3월 31일 버지니아에서

제 37차 의대 북미주 총동창회 학술대회가 내년 3월 31일 버지니아주 폴스 처치에서 열린다.

학술대회는 그동안 연례행사로 치러졌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년만에 처음 열리게 됐다.

대회는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3박 4

일 일정으로 열린다. 첫날은 골프회동과 워싱턴 D.C. 관광, 다음날부터 CME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장소: Westin Tysons Corner
7801 Leesburg Pike
Falls Church, VA

문의: 안우성(703-893-1340)

신년모임 안내

뉴잉글랜드
일시: 1월 8일(토) 오전 11시
장소: 줌 하레스
문의: 김유경 회장(781-223-4411)

남가주 문리대
일시: 1월 15일(토) 오전 11시
장소: 로텍스 호텔
문의: 박제환 회장(323-229-3369)

남가주 공대
일시: 1월 8일(토) 오전 11시
장소: 파크뷰 갤러리
문의: 남정우 회장(714-526-9169)

명복을 빕니다

박양중(문리대 59, LA) 12월 6일 전 남가주 문리대 동창회장. LA평통 부회장을 지내는 등 한인사회에서 마당발로 통한 올드타이머다.

김서영(문리대 68, 애틀랜타) 11월 3일 텔러디가 대학 물리학 교수. 68학번 여학생 모임인 마로니에 회원들을 만나기 위해 거의 매년 귀국했을 만큼 동기가 남달랐다.

이의덕(대학원 70, LA) 11월 3일 전 남가주 총동창회 부회장, 전 남가주 대학원 회장.

유경상(농대 58, LA) 10월 8일 전 콜로라도 주립대학 교수.

김종섭 상임고문

사회대 50억원 쾌척, 기부총액 100억 넘어

김종섭(미주동창회 상임고문, 문리대 사회복지학 66) 삼익약기 회장이 사회과학대학의 ‘미래사회 50년 설계기금(사회대 리모델링 기금)’에 50억원을 쾌척했다. 이에 김 동문의 지금까지 서울대 총 기부액은 100억원을 넘어섰다.

서울대는 지난 11월 30일 관악 캠퍼스에서 오세정 총장, 유홍림 사회과학대학장 등 주요 교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 고문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역임한 바 있는 김 동문은 서울대 총동창회 상임 부회장과 문리과대학 총동창회장, ROTC 회장, NGO 코피온 이사장 등 공공의 영역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미주 동창회에도 10만 달러를 기부, 남다른 모교애를 보였다.

오세정 총장은 “삼익약기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고 사회공헌에도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인 김종섭 회장에 존경



김종섭(왼쪽) 회장과 오세정 총장

을 표한다”며 “김 회장의 (50억) 출연은 설립 50주년을 맞는 사회과학대학이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한 통합적 교육과 연구, 그리고 미래를 선도할 서울대의 우수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욱 동문, SBS 부사장 승진

현지 언론인 첫 고위 임원 탄생



미주 SBS ‘이브닝 뉴스’에서 앵커를 맡고 있는 하성욱(사진·사회과학대 정치학 84) 보도국장이 SBS 인터내셔널 연말 정기 인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는 미주 지역에 진출한 한국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최초로 현지 언론인을 고위 임원으로 임명한 것이어서 의미가 큰 인사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2009년 10월 SBS 인터내셔널 초대 보도국장으로 부임한 하 동문은 10여 년 동안 보도 진행자(앵커)로서 한

인사회 문제는 물론 미국 주류사회에 대한 감각적 탐사 보도로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일본제국주의 전범기인 ‘육일기’ 벽화 철거와 관련해 한인 커뮤니티의 여론을 이끌었다. LA한인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케네디 스쿨 건물 벽에 육일기 문양의 벽화가 그려져 한인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킨 것. 하 동문은 벽화철거 서명운동을 벌여 끝내 한인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하 동문은 지난 2018년 한인타운에 노숙자 임시쉼터를 설치하겠다는 LA시장의 갑작스런 통보에 맞서 반대여론을 조성, 시정부의 조치를 무산시켜 지금도 한인 언론계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

하 동문은 “뉴스의 품격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앵커의 이미지가 좋아야 한다”며 “앞으로 한인사회의 각종 현안을 공론화하는 등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1월 포럼 안내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기본개념 이해
손정석(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1월 8일(토) 오전 10시~오후 1시(서부시간)
Zoom ID: 506 963 9349
Passcode: SNU_Forum

Essays on Modern Physics
민병곤(록히드 마틴)
1월 11일(화)
오후 6시~8시(서부시간)
www.snuaa-socal.org

‘마담 퀴리’의 꿈을 접고 화가의 길로… ‘메타버스’ 커뮤니티에 예술인들 집을 짓고 싶어



주선희
(물리학과 66)

늘 궁금했다. 과학과 미술이 만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뜬금없는 말로 들리겠지만 주선희 동문을 뵈 때마다 한 번 물어보아야지 했는데 마침 기회가 왔다.

미주동창회 사무실과 이웃해 있는 파크뷰 갤러리에서 지난달 중순 18인 그룹전이 열렸다. 한인화가들이 오랜 팬데믹 기간을 지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전시회를 연 것이다.

출품 작가들 중엔 비미술 전공자도 몇 분이나 됐다. 필자의 작품도 걸렸는데 내가 기획을 맡았다.

출품 작가 가운데 비미술대는 주 동문과 필자 등 몇 안 됐다. 가장 눈길을 끈 화가는 단연 주 동문이었다.

“선배님, 과학과 미술은 공통점이 없나요?” 당연히 두 분야는 연계성이 있을 것 같았다.

돌아온 대답은 그러나 예상을 꺾다. “전혀요. (공통점이) 없어요.”

물리선생이 좋아 물리학과 지원, 덜컥 합격 우주의 신비 풀려했지만 갈수록 ‘오리무중’ “물리학 계속했으면 행복하지 않았을 것”

주 동문은 물리학과 출신이다.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공부하기가 더 어렵다는. 한 학년 정원은 30명 정도다. 입학할 때 물리학과 여학생은 주 동문의 경기여고 동기생 합쳐 딱 두명이었다고 한다. 나중에 화학과에서 여학생이 전과를 해와 3명으로 늘어났지만.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수재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했으니 스트레스도 많았을 터다.

물리학과 미술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주 동문은 왜 지금 화가가 돼있는 걸까.

“어떻게 전공을 물리학으로 정했나요?” 주 동문의 답변은 이랬다. “원래 수학과 물리학을 좋아하는 했습니다. 문제 푸는게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물리를 가르친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입학시험 때 수학문제 몇개 맞췄는지 물어보려다 그만뒀다. 아마 10개 중 최소 8개는 맞췄을거라 지레 짐작을 했다.

주 동문의 그림그리기는 중고등학교 시절 시작됐다. “연필로 주변 사람들 스케치를 만화처럼 그려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리는 것보다 좋은 그림 보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대학 진학 후엔 공부가 바빠 그림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대학원에 진학, 물리학 공부를 더 했다. 석사학위를 따냈는데 물리학은 딱 거기까지였다.

“1980년대 초 즈름 내가 과학자의 소질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를 성찰하면서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봤다. 그러던 중 우연히 샌타모니카 칼리지의 미술강사를 만났다. 진 발로우 선생의 드로잉 클래스를 택한 것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이다. “유대계 선생이었습니다. 그 분이 제 눈을 열어주셨지요. 말하자면 제 멘토



소녀와 애완 닭

나 다름없어요.”

이후 칼리지에서 많은 아트 클래스를 수강해 미술에 대해 심도있는 공부할 수 있었다.

미술을 전공으로 하겠다고 결심한 주 동문은 UCLA 대학원에 포트폴리오를 제출, 마침내 입학허가를 받아냈다.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처음엔 추상화를 전공했는데 졸업할 때 즈름 구상 쪽이 자신에게 더 맞다고 생각해 졸업 전시회는 ‘반 추상 풍경화’로 했다.

“물리학을 왜 포기했느냐”고 다그쳐 물었다. “첫 애를 낳고 대학원에서 공

부하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사실 물리학이 우주의 신비를 풀어줄거라 기대해 빅뱅이론 등을 섭렵했어요. 그런데



라벤더 언덕의 소년



귀향

배울수록 오리무중이더라고요. 솔직히 대학 다닐 때 실망을 좀 했다”고 털어놨다.

가족이나 주변의 반대는 없었느냐고 묻자 “(물리학을 포기한 데 대해)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실망하셨지요. 제가 박사학위 받고 교수하기를 바라셨는데…” 어찌면 주 동문의 어

머님은 딸이 훗날 ‘마담 퀴리’가 되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물리학이 미술인생에 도움이 된 적은 없었는지 물어봤다.

“물리학에서는 자연현상과 이론, 실험결과를 갖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내는, 창조적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두뇌가 필요합니다. 미술에서는 무의식에 있는 감정과 미술적인 구성요소를, 의식 속에 있는 지식을 사용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는 창조적인 문제해결의 과정과 비슷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주 동문은 1985년부터 LA는 물론 뉴욕, 이탈리아, 서울과 대전 등지에서 수십번의 그룹전에 참가한 베테랑이다. 가장 최근엔 9번째 개인전 ‘멀리서 보내는 사랑’을 열어 호평을 받았다.

“팬데믹 동안 내면의 세계를 자주 들여다 볼 기회가 많았어요. 내면의 풍경 속에서 끝없이 샘솟는 사랑의 샘터를 발견했지요.”

자신의 그림세계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저는 사람을 좋아해요. 자연을 좋아하고 하느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요. 요즘은 디지털로 제가 만들고자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림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포부를 묻는 질문에 물리학도 다운 비전이 물어났다. “메타버스(Metaverse)’에 예술인들의 집을 짓고 싶어요.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건전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습니다.”

주 동문은 남가주 미술가협회, 가톨릭 미술가회, TAG 갤러리 회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배님, 물리학을 계속 공부했다면 지금쯤 어땠을까요?” 주 동문은 흘깃 미소를 흘렸다. “별로 행복하지 않았을 거 같습니다.”

취재= 홍선례(음대 70)

“내가 우주를 품은 까닭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DVD가 예술혼 흔들어



홍선애 (서니 김)
(미대 61)

홍선애(서니 김) 동문을 뵈 때마다 떠오르는 문구가 있다.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표현이다. 얼마전 LA 타임스를 비롯해 데일리 파일럿, 스투 뉴스 뉴포트, 뉴스 브레이크 등 여러 주류 미디어에 자신에 관한 기사가 나왔으며 이메일을 보내왔다.

기사 중간쯤 ‘필이 꽃힌’ 대목이 있었다. 자신의 꿈을 얘기하면서 언젠가는 꼭 뉴욕의 현대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 in New York)에서, 그것도 개인 전시회를 갖겠다는 포부다. 팔순이 가까운데... 벌써 은퇴하고도 남은 나이인데도 20대 마냥 여전히 꿈을 얘기하고 있다.

뉴욕은 홍 동문에겐 제 2의 고향이나 다름없겠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뉴욕에 왔으니까. 어쩌면 그에게 뉴욕의 현대미술관 전시는 평생의 로망으로 자리 잡았을 것 같다.

홍 동문은 요즘 남가주의 부촌 뉴포트비치의 도서관 갤러리에서 단독 전시회를 갖고 있다. 전시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 두달이다. 모두 17점을 갤러리에 걸었다.

테마는 예나 지금이나 거의 같다. ‘별이 빛나는 밤(Starry Nights)’이거나 ‘우주의 꿈(Cosmic Dreams)’이다. 전시회 타이틀도 흥미를 끈다. ‘우주의 감정을 잡아보라(Capture the Emotions of the Cosmos)’다. ‘느껴보라’(Feel) 대신 ‘잡아보라’고 했다.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아예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게 아닌가.

뉴포트비치 도서관 갤러리는 연중 오픈되는 곳이 아니다. 꼭 두달동안만 화가들에게 제공된다. 그래서 이곳에 전시하려면 최소 2년 전 신청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뉴포트비치에서 도서관은 관광 명소나 다름없다. 유명 박물관 못지않게 인파가 몰린다. 더구나 홍 동문의 전시기간은 생스기빙데이, 크리스마스, 새해를 아우르는, 연중 가장 바쁜 시기다. 홍 동문에 따르면 하루 평균 4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관람한다.

어떻게 이런 행운을 잡은 것일까. 뉴포트비치 예술 위원회의 알린 그리어 위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홍 작가의 작품들을 보자마자 끌렸어요. 우선 작품세계가 대단했습니다. 색깔이 며, 텍스처며... 다른 화가들과는 확실히 결이 달랐어요. 아무튼 한눈에 반했다고 할까. 심사위원들 모두요.” 그리어는 특히 홍 작가의 우주와 천체를 표현하는 기법이 남달랐다고 극찬했다.

홍 동문은 자신에 가장 영향을 끼친 인

물이 칼 세이건(1934~1996)이라고 밝혔다. 20여 년 전 세이건이 제작한 DVD를 보는 순간 그의 예술혼에 강한 울림을 줬다는 것이다. 이후 우주의 불가해

대 한편으로는 예술의 경지를 느끼게 해주는 걸작이다.

지난 1990년 보이저 1호가 지구로부터 61억km 떨어진 우주공간에서 지구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주의 강한 힘과 무한함에 비해 지구는 한낱 ‘점’에 불과하다. 그래서인지 홍 동문의 작품들은 색채가 몽환적이다. 블랙홀, 빅뱅, 갤럭시, 별들의 죽음 등 우주와 관련된 수 많은 발견과 학설에 대요돼 캔버스에 무한의 세계를 그려왔다.

홍 동문은 인터뷰에서 자신을 ‘신앙인’으로 소개했다. 세이건을 알게 되면서부터 우주를 창조한 하느님에 대해 더욱 경외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우주의 꿈’ 초기 시리즈는 우주의 강한 힘에 초점을 뒀다면 최근에는 우주의 영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화폭에 담고 있다.

그의 화풍에 영향을 끼친 화가는 마크 로스코와 잭슨 폴락이다. 로스코의 단순한 추상과 폴락의 액션 페인팅 스타일이 자신을 추상 표현주의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홍 동문의 작품은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에 4점이나 소장돼 있을 만큼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의 미국생활은 크게 뉴욕과 LA시절로 나뉜다. 뉴욕서는 파슨스 스쿨 오브 디자인, LA에서는 패션 디자인의 명문 FIDM을 다녔다. 지금까지 그룹전 76회, 국제아트페어 13회, 개인전 36회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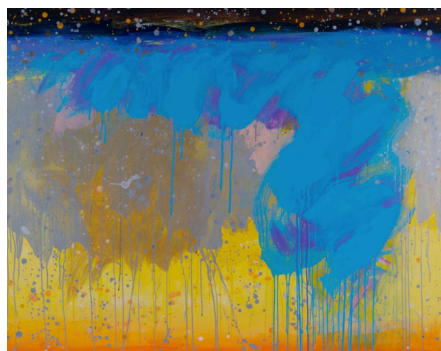
신문 인터뷰 말미에 홍 동문의 진솔한 소망이 담겼다. “사람들이 내 작품을 보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방점이 ‘해피’에 찍혀져 있어 순간 몽클했다.

자신의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사랑, 신뢰의 소중함을 공감하고 우주에의 아름다운 꿈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일 게다.

취재=김양희(음대 77)



Cosmic Dream, Acrylic on Linen



Cosmic Dream 13-VI, Acrylic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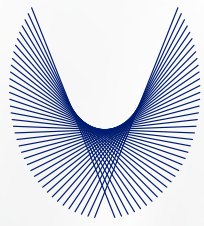
Starry Night 21-XVI, Acrylic on Linen

팔순 가까운 나이에 열정 식지 않아 뉴욕 현대미술관 전시회가 평생의 꿈 “내 작품 보고 모두 행복했으면” 소망

성과 영원, 혼돈과 질서의 완벽한 결합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해왔다.

그의 ‘우주의 꿈’ 시리즈를 이해하려면 칼 세이건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의 명저 ‘코스모스(Cosmos)’는 모든 과학도들의 필독서다. 천체물리학, 천문학, 물리학, 심지어 철학과 인문학 등 모든 분야의 학문이 망라

사진을 찍어 전송해왔다. 이때 보이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세이건은 사진속 지구를 ‘창백한 푸른 점(pale blue dot)’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의 만용, 우리의 자만심, 우리가 우주 속의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에 대해 저 희미하게 빛나는 점을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의 행성은 사방을 뒤덮은 어둠의 우주 속 외로운 알갱이



새로운 도약 당신과 함께

서울대학교 모금캠페인

2025년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 공간이 서울대학교에 탄생합니다

서울대학교 문화관은 관악캠퍼스에서 서울대를 대표하는 복합문화시설로 그동안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학내를 넘어 서울대가 가진 문화적 역량을 지역사회와 공유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시설이 필요합니다. 서울대는 '문화관 리모델링·증개축 사업'을 통해 국립대학으로서 미래 한국문화 발전의 책임과 지역사회와 소통의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문화관 모금캠페인에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객과 소통하는 빈야드 홀

빈야드 타입의 객석은 관객의 시선이 한방향으로 고정된 것을 벗어나 새로운 물리적, 심리적 공간감을 제공



소통과 교류의 공간

만남과 교류, 휴식과 창작이 활발히 일어날 새로운 창의적 문화를 생산하는 공간

입체적 문화 플랫폼 공간

대학의 중심인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문화 활동과 실험을 통해 새로운 배움의 형식을 만들어 내는 공간



인프라허브

대학-지역 상생을 위한 생활문화 인프라허브 역할의 공간

문화공작소

글로벌 K컬처 예술인 발굴, 문화실험공작소, 문화기술융합형 인재양성의 인큐베이터

랜드마크

서울대 최초의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서울대와 서울시 서남권 랜드마크 건축물

공감의 공간

서울대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 가치를 담아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공간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서를 작성 후 휴대폰으로 찍어 america@snu.ac.kr로 메일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서울대학교의 혁신을 주도하고 미래를 여는
문화관 모금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금목표
310억원

모금기간
2021년 10월
~계속

문화관 리모델링기금 간단참여신청서 [MH21-12]

성명: _____ 연락처: _____
 학과(특별과정): _____
 입학연도(기수): _____
 약정금액: 정기후원 매월 _____ 원
 일시후원 일금 _____ 원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J] 222 Bridge Plaza South Suite 720, Fort Lee, NJ 07024 Tel +1-212-768-9144 Fax +1-212-768-4494 E-mail kenneth@klgroup.cpa
 [LA]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1-213-435-1974 E-mail america@snu.ac.kr
 [Seoul] SNU Research Park Main Building,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Tel +82-2-871-8004 Fax +82-2-872-4149 E-mail snuf@snu.ac.kr

차민영 동문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영예' 코로나 팬데믹 방역과 대처 인정돼 ... '건강 지킴이' 타이틀

차민영(의대 76) 동문이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했다.

"한인사회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차 동문은 "특히 서울대 동문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매년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에 한인사회 발전에 공헌한 이들을 선정, 발표한다. 전수식은 지난 11월 15일 LA 총영사관저에서 열렸다. 이날 포상을 받은 남가주 한인들 가운데 훈장을 받은 이는 차 동문이 유일하다.

차 동문이 훈장을 받은 배경은 코로나 팬데믹 대처와 관련해서다. 한인 미디어는 물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의료정보를 제공, 한인들이 코로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차 동문에게 '코리아타운 지킴이'라는 영예의 타이틀이 주어진 것도 이 같은 그의 노력 덕분이다.

유튜브 채널 홍보

차 동문의 유튜브 채널은 LA뿐 아니라 미 전역과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코로나 퇴치 관련 의학 논문이나 보고서들을 밤 새워 정리, 신문과 방송 TV 등 매체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동포들이 가장 신뢰하는 의료인으로 인정받았다.

코로나가 발생하자 맨 먼저 한인 시니어들에게 무료로 마스크를 배부하는 등 최악의 상황 방지에 전력을 다 했다.

한국의 성금모금 캠페인에도 동참해 대한적십자사에 코로나 극복 성금으로 1만달러를 쾌척하기도 했다.

'온라인 시니어 트로트'는 차 동문이 기획한 작품이다. 팬데믹으로 '집콕' 상황이 벌어지자 시니어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비대면 트로트 경연대회를 개최한 것.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효도 이벤트로 기획된 트로트 대회는 심리적으로 위축된 한인 노인들에게 큰 위안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차 동문은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 캠페인' 홍보대사도 맡고 있다.

"일부에선 아직도 (백신) 접종을 거부 또는 기피하고 있어요. 부작용을 우려

해서인데 정말 안전해요." 차 동문은 요즘 델타와 오미콘 등 코로나 변이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접종을 해야 치명적인 감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접종 독려 뿐 아니라 코로나 백신보급에도 적극적이다. "코로나는 국경을 모

계에 혁신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지난 1993년 독립의료법인 서울메디칼그룹(SMG)을 설립해 미주 한인들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한 것이다. 차 동문은 한인을 위한 의료전문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 동문은 미국사회에서 이민자들이

는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관장하는 연방의료기관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로부터 최고등급인 '5스타'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공로가 인정돼 차 동문은 지난 2019년 남가주한인의사협회가 시상하는 '올해의 의사상'의 첫 수상자로 선정됐다.

차 동문은 '효도 대잔치'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독거노인들과 저소득층 시니어들의 복지에도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인문학 강의를 마련, 한인 시니어들에게 미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차세대 지도자 육성도 차 동문의 관심분야다. "한인사회는 무엇보다 정치력 신장이 요구되는 커뮤니티입니다. 이제 우리도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력을 주류사회에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유망 정치인 후원

차 동문은 유망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아끼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된 영 김과 미셸 박 스틸도 차 동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두 한인여성 이민자들이 민주당 우세지역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와 당선, 워싱턴 의사당 입성에 성공한 것이다.

차 동문은 주류사회와 한인사회를 잇는 가교역할에도 열성적이다. 주류사회의 지도자급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 및 위상 정립은 물론 한인사회에 우호적인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차 동문은 미국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메디칼그룹을 키워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우리 그룹은 주류사회 메디칼그룹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메디칼그룹은 최소 24~48시간 내에 리퍼럴 허가가 나온다. 보험회사에서 메디칼그룹에 리퍼럴 허가의 총괄적인 권한을 위임해줬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에 최대한 존중을~." 차 동문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늘 가슴속에 품고 지낸다.

캘리포니아 백신 홍보대사, 통 큰 기부 '서울메디칼그룹'은 '5 스타' 등급 평가



국민훈장 수훈한 차민영 동문.



팬데믹 기간 동안 트로트 대회 개최.



LA의 서울 메디칼 그룹 본부 건물.

릅니다. 그런데 백신도 국경을 모르고는 마찬가지로요." 차 동문이 백신기금모금 캠페인에 기부를 아끼지 않는 이유다. 국제자선단체인 '킹 보두앙 파운데이션 USA'가 주관하는 백신기금모금에 상당액을 기부했다.

'글로벌 마인드' 의료인

이 기금은 백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들과 백신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나라들에 보내질 백신구입에 쓰여진다.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 뿐만 아니라 '백신 빈국'에도 도움이 손길을 펴고 있는 차 동문이야말로 '글로벌 마인드'의 의료인이다.

뛰니뛰니해도 차 동문은 한인 의료

언어문제와 정보부족으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한인들을 위한 의료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느꼈다. 미국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식생활, 생활습관, 체질을 감안해 한인들에게 최적화된 의료서비스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그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LA 코리아타운에서 출범한 서울메디칼그룹은 뉴욕, 뉴저지, 조지아, 시애틀, 라스베이거스, 하와이에 이르기까지 미 전국규모의 한인의료네트워크를 구성했다. 미주 한인이민역사에서 또다른 금자탑을 세운 것이다.

차 동문에 따르면 오늘날 서울메디칼그룹에 소속된 의료진은 5,000 명이 넘

비트코인 더 오를까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le desir de l'homme, c'est le desir de l'Autre -Jacques Marie Émile Lacan



신경섭 교수
(캘스테이트 풀러턴)

해 그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도 COVID가 몰고 온 팬데믹 속에 묻혀가고, 결국 남는 질문은 현실과 가상 세계의 아이덴티티 중에 어떤 것이 내게 자아 실현을 위한 최선의 것인가이다.

이 질문의 답이 현실이 아닌 가상 세계가 될 때, 우리는 그 시점을 Singularity, 즉 메타버스의 빅뱅을 몰고 올 특이점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은 부분을 복제하고 있다.

디지털 세계의 속성중 하나인 완벽한 복제는 우리에게 많은 난제를 안겨왔다. 정보의 평등성은 인류가 이뤄낼 수 있는 절정의 민주화를 이뤄낸 반면, 그 내재된 익명성은 수많은 범죄를 양산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을 일으켜 왔다.

하지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려는 인간의 속성은 블록체인을 통해 그 익명

(Lending/Trading)이 발전하고, 수많은 계약(부동산, 증권, 채권 등등)에 관한 탈중앙화 플랫폼(Contracting)이 발전하고, 법률 시스템(Escrow/Arbitration)이 정립되고, 디지털 고유 자산(NFT)이 여러가지 거래 시장(Curation/Commerce)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면서 서로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는 것이다.

“비트 코인, 이더리움, 도지 코인, 시바 코인... 이 거대한 흐름이 멈출 것 같지 않아”

우리는 매일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에서,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현실에서의 아이덴티티가 아닌 서로의 욕망을 갈구하며 가상 세계에서의 또다른 아이덴티티로 살아간다. 영화 ‘Surrogate’와 ‘Ready Player One’이 던지는 메시지는 누구나 한번쯤은 가질 법한 내 삶의 ‘리셋 버튼’이 너무 먼 미래가 아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다.

일상이 된 가상세계

현실에서 흡수저로 살게 한 나의 부모를 가상 세계에서는 금수저를 가진 부모로, 나의 파탄난 결혼 생활을 이상적인 배우자와의 완벽한 결혼 생활로, 내게 골칫덩이인 남동생 대신 헌신적인 누나로,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를 총복스런 내 부하로, 그것이 나의 욕망이든 타인의 욕망이든 현실에선 이루지 못한 걸 너무도 쉽게 이룰 수 있다면 누구든지 그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지 않을까?

사실 우리는 지난 30 년동안 눈부시게 발전한 IT 를 통해 이런 현실과 가상 세계의 괴리를 부단히 연습하고 있다. 실제의 나와 컴퓨터 속에서의 자아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점점 그 괴리를 키우고 있다.

초창기 이메일 속의 나는 현실의 나로부터 출발해서, 각종 커뮤니티 속에서 달라지는 나를 발견하고, 각종 게임들 속에서 나오는 다른 캐릭터로 플레이를 하며, 각종 소셜 네트워크에서 전혀 다른 인물로 포장하며 살아오고 있다.

켜져가는 괴리를 온/오프 모임을 통

지난 팬데믹동안 전 세계 각국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풀더니 각종 암호 화폐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연일 상한가를 치면서 주변으로부터 이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다.

2018년 후반에 한 싱가포르 투자자를 만나 이더리움 플랫폼을 이용해서 NSG라는 코인을 개발하고 홍콩 거래소에 ICO도 해봤던 경험이 있던 터라 다들 문의하셨겠지만, 사실 코인개발과 그에 대한 투자는 전혀 다른 영역인 지라 나의 오라클 크리스털 볼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다.

하지만 이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은 현실 세계에서부터 가상 세계로의 거대한 흐름, 그것도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경제 활동의 축인 자산 시장의 이동은, 비록 그 가치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이 있을지언정, 그냥 무시하기엔 너무도 충격적이다.

가상 화폐의 영역

실제 돈으로 게임 머니나 캐릭터 아이템을 사고 파는 수준이 아닌 자산 그 자체가 되어버린 가상 화폐는 그 영역을 화폐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삶 속의 많



최근들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비트 코인 가격. 그러나 가상세계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줄어들 것 같지 않다.



VR/AR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여 인간의 실제 삶과 유사한, 자산 이상의 가치들이 가상 세계에서 마치 우주를 만든 빅뱅처럼 무한히 만들어 진다면 우리는 그 때 어떤 아이덴티티로 살아가게 될까.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처럼 우리의 다중 아이덴티티를 사고 팔면서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게 될까.

아이덴티티 갈등

지금도 인기있는 블로그,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의 프로파일을 서로 사고 파는 군상들을 보면 그리 먼 미래의 일은 아닐 것이다.

쓰레기 더미로 쌓인 방구석에서 정크 푸드로 배를 채우며 VR헬멧을 쓰고 가상 세계에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며 여러가지 아이덴티티로 화려한 삶을 사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날 비트 코인, 이더리움, 도지 코인, 시바 코인의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에 대한 내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 거대한 흐름이 멈출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신경섭(물리학과 91)은

CTO@Sonarverse,
https://sonarverse.com
CDO@NTERSOL,
https://ntersol.com
Adjunctive Faculty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Fullerton, Computer Science Department

성을 보장하며 디지털 정보의 완벽한 복제 위에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입히게 되면서 가상 세계에서 다시 부활한다. 단순한 화폐를 넘어서 Dapps(Decentralized Applications) 속에 우리 인간의 삶 여러 부분을 넣고 있는 것이다. 가상 화폐로 거래되는 금융시장

나노 테크놀로지가 세상을 바꾼다

헬스케어에 적용... 알츠하이머, 암 퇴치도 눈 앞



진성호 박사
(공대 64)

다음은 지난 11월 미주동창회 주관으로 열린 진성호 박사의 포럼 강연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재료공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진 동문은 나노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공학 전공 동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노와 관련한 기본지식을 간략하게 기술한 뒤 진 박사의 주제 강연을 소개한다. ... 편집자.

나노는 난쟁이를 뜻하는 그리스어 '나노스(Nanos)'에서 유래했다.

나노는 10억분의 1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극미세 가공 과학기술을 말한다. 쉽게 말해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 대략 원자 3~4개의 크기에 해당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나노 덕분에 볼 수도 없었던 세상을 볼 수 있게 됐고, 커다란 물건을 작게 만들 수도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성질의 물질까지 만들 수 있다. 나노 크기로 변하면 색깔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금은 노란색이지만 나노 크기의 금은 붉은 색을 띤다.

타이태닉의 비극

나노기술을 진작에 알았다 라면 피할 수 있었던 비극도 적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리버티(Liberty)' 수송선을 무려 5,000여 척이나 만들었다. 그런데 북대서양쪽에 투입된 수송선 가운데 1,000여 척이 두 동강 났다. 반면 남태평양쪽의 수송선은 멀쩡했다.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북대서양의 해수온도는 평균 화씨 35도로 매우 낮았다. 선박제조에 쓰였던 철이 균열돼 배가 절단난 것이다. 그러나 남태평양은 해수온도가 화씨 50도로 비교적 높아 피해가 없었다.

타이태닉도 마찬가지다. 1910년대 당

시 최고의 공학기술로 설계된 초호화 여객선이었지만 첫 항해에서 빙산에 부딪혀 침몰, 1,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타이태닉은 당시 북대서양 항로의 낮은 해수온도에선 균열되기 쉬운 철강소재를 사용했다.

우리는 주변의 제품들이 온도가 내려가면 딱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예를 들어 초콜릿이나 옛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면 쉽게 깨지는 원리다). 타이태닉에 사용된 철강소재는 바로 연한 성질에서 딱딱한 성질로 바뀌는 현상(ductile-brittle transition: DBT)이 발생한 것이다. 대서양의 해수온도가 거대한 외부충격(빙산 충돌)이 일어나면서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노 기술을 접목해 철강소재의 연성을 증가시켰더라면 리버티 수송선이나 타이태닉은 참극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퍼서미아(magnetic hyperthermia)다. 나노 자석입자를 암종양에 주입, 외부에서 열을 가해 온도를 올려줘 암세포를 죽이는 테크닉이다.

알츠하이머도 정복할 날이 머지 않았다. 나노 기술의 진화 덕분이다.

나노 캡슐로 전달

뇌는 신체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그런 탓인지 뇌는 다른 기관보다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일종의 보호장치가 존재한다. 이 중 하나가 뇌혈관장벽(blood-brain barrier: BBB)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러가지 병원체나 병원균 같은 독소조직이 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 장벽을 치고 있는 것이 바로 BBB다.

요즘 세계 각국의 화두는 단연 클린 에너지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다. 그러나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도 사실은 클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전기는 아직 70%가량이 오일이나 석탄을 태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수소차 역시 사정은 같다.

그러면 어떻게 클린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

어릴 적 다들 돋보기로 종이를 태워본 장난을 해봤을 것이다. 원리도 모른채 무심코 했던 장난이 사실은 태양열 에너지 발전의 원리다. 태양의 복사열로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아이반파 발전소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 경계선(15번 프리웨이)에 위치한 아이반파(Ivanpah) 태양열 발전소가 대표적인 경우다. 22억 달러를 들여 지난 2014년 준공됐다. 약 30만개의 집열관이 설치돼 열을 모은 뒤 460피트 타워 상단에 위치한 보일러로 보내 터빈을 돌린다. 후버댐이 생산하는 전력과 비슷한 발전 규모다. 집열관의 효율은 태양광을 흡수하는 나노 입자를 이용해 증가시킨다.

나노 기술은 엔터테인먼트에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와이의 멋진 해변을 감상하며 파도나 바다 냄새까지 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 가져봤을 것이다. 하와이까지 가지 않고도 하와이를 즐길 수 있는 시대도 곧 다가올 것 같다.

냄새를 기술적으로 구현시키려는 시도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엔지니어가 영화관람시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스멜-오-비전(smell-o-vision)'이라는 기술을 개발해 냈다. 당시 30개 쯤의 냄새를 분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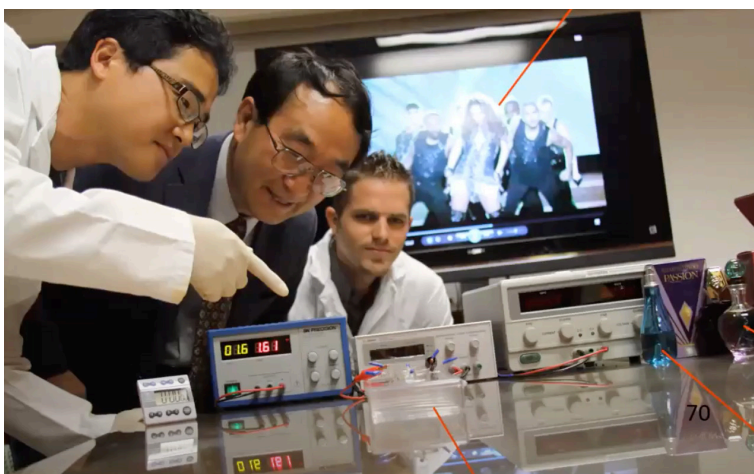
UC 샌디에고 교수 시절 연구진과 함께 나노 자석입자를 이용해 '향기나는 TV'를 만든 적이 있었다. 제니퍼 로페즈의 공연장면을 TV에 올리고는 시청자들이 로페즈가 애용하는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만들었다.

이처럼 나노기술의 응용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잘만 이용하면 인류에게 좋은 환경과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꿈의 테크놀로지다.

진성호 박사는

UC 버클리에서 재료공학 박사 벨 연구소 책임 연구원 UC 샌디에고 명예교수

'스멜-오-비전' 기술도 현실 태양열 에너지 발전도 가능



'향기나는 TV'를 실험하고 있는 진성호 박사(가운데) 연구팀.



'하이퍼서미아' 요법으로 암세포를 추적, 파괴하는 나노 의료장비.



캘리포니아-네바다주 경계선에 위치한 태양열 에너지 발전소. 후버댐과 맞먹는 전력을 생산한다.

나노기술은 헬스케어 산업에도 유용하게 쓰인다. 대체로 암세포는 인체의 정상 온도보다 3~4도만 올려줘도 죽는다. 옛 그리스나 이집트에서 유방암 환자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시켜 치료했다는 기록도 나와있다.

그러나 간암이나 대장암 등은 몸 속 깊은 곳에서 발병하기 때문에 퇴치가 극히 어렵다. 이같은 경우 공학자들의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른바 매그네틱 하

알츠하이머는 치명적인 뇌질환이다. 현재 화이자 등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은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 상용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BBB다. 이 장벽을 넘어 치료제를 뇌혈관에 전달해야 되는 데 이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것이 공학이다. 나노기술을 이용, 혈관에 마그네틱 나노 캡슐을 넣어 치료제를 뇌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 4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 진료 수준 최고 5성급 메디칼 그룹
차민영(의대76)

인생 후반 건강지킴이

야구에서는 구원투수!
메디케어 HMO는
서울 메디칼 그룹!

인생 후반, 시니어 분들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의료 혜택의 선두주자
서울 메디칼 그룹이 있어
야구의 구원 투수처럼
건강도 확실하게 지켜드립니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

건강 스트라이크 ~

주치의 선택은
서울 메디칼 그룹!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LA 지역 213.389.0077
OC 지역 714.367.6867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면 ...

식재료, 조리법, 식사법 제대로 알고 먹어야



오남환 박사
(농대 식품공학 68)

우리 몸의 최소 구성 단위는 100조 개의 세포라고 한다. 그런데 이 많은 세포가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한 것인데, 세포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건강한 영양은 건강한 식재료를 건강하게 조리해서 건강하게 섭취하는데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성경(창세기)은 건강한 식재료로 과일, 곡물, 채소, 깨끗한 동물의 고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동물의 고기는 노아 홍수 이후 더해진 것으로, 원래는 과일, 곡물, 채소가 인간의 주식이었다. 인간은 원래 창조 되었을 때 채식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장의 구조와 길이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인간의 장은 채식 동물의 구조로 상대적으로 육식 동물보다 훨씬 더 긴 소장(1.5-2.5m)과 대장(5-7m)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대의 발달된 영양학으로도 채식이 육식보다 인간의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건강한 조리법

아무리 건강한 식재료라 할지라도, 제대로 조리하지 않으면 건강한 식재료가 제공하는 좋은 영양 성분들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없다. 조리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음식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식재료에 가하는 열이다. 쉽게 말해 음식을 조리할 때 가열함으로 식재료가 갖고 있는 원래 영양 성분의 많은 부분이 변형과 변성을 일으키고 그 유익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채소 조리의 문제점

우리가 채소를 먹는 주된 이유는 채소 속에 들어 있는 우리 건강에 아주 필요한 비타민, 효소, 광물질, 항산화제를 섭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채소를 조리하기 위하여 열을 가하면, 비타민은 파괴되고, 효소는 변성이 되고, 광물질은 무기 광물질로 변하고, 항산화제는 불활성화된다. 그러면 우리가 채소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유익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런데 광물질의 경우는 그 유익이 상실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건강에 해가 된다. 왜냐하면, 채소 속에 있던 우리에게 유익한 유기 광물질이 가열함으로 인하여 무기 광물질로 변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 몸의 모세 혈관을 막히게 함으로 인간의 노화와 만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채소는 가능하면 생으로 먹거나 생즙을 내서 먹는 것이 좋다. 건강을 위하여 채식을 하는데, 채소를 잘못 조리하면 오히려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건강한 식사법

아무리 좋은 식재료를 건강하게 잘 조리한 음식도 잘 섭취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올바른 식사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식은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소화 기관들이 미리 알고 소화를 위해



서 준비가 잘 되어야 잘 소화시킬 수 있어서다.

둘째, 음식을 잘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하다. 잘 씹지 않고 급하게 먹은 음식 덩어리는 소화가 잘 안되어서 장내에서 부패돼 독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또 소화시키는 데에도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셋째, 과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식으로 인한 과잉 영양은 우리 몸의 소화 기관에 큰 부담을 주고 결국 많은 독소를 생산하게 돼 건강에 특히 해롭다. 그러므로 소식하는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넷째, 간식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해야 한다. 간식은 작은 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화기관이 다시 일을 해야 하므로 소화 기관에 큰 부



음식은 제때 섭취해야 소화 잘돼 장의 구조 봐도 인간은 채식동물 레몬은 최상의 식품, 우유 줄여야

담이 된다.

다섯째, 과일은 따로 먹는 것이 좋다. 과일을 채소나 곡물, 고기와 함께 먹으면 서로 소화되는 시간이 달라서 다른 음식과 섞인 과일은 쉽게 부패하거나 발효될 수 있다. 그래서 과일은 따로 식사 전 최소 1시간 전에 먹는 것이 좋다. 특히 식사 후 디저트로 과일을 먹는 습관은 잘 못된 것이다.



레몬은 최상의 식품

세상에 많은 좋은 식재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뛰어난 식재료는 레몬이다. 레몬이야 말로 노화와 모든 병의 근본 원인인 모세 혈관의 막힘을 뚫어줄 수 있는 유일한 천연 식재료이다.

레몬 속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그 외 물질이야 말로 탁월한 혈관 청소제다. 굳은 혈관이 막힌 것은 발달된 현대 의학의 산물인 스텐트 시술로 해결할 수 있어도 적혈구 하나가 겨우 통과할 정도의 미세한 모세 혈관의 막힘을 해결할 방법은 레몬 밖에 없다.

레몬의 유익한 점이 많지만 그 중에서 한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레몬의 내시경 역할이다. 우리의 위나 장에 문제가 있을 때 레몬즙 원액을 마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쓰린 증상을 유발하여 위나 장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 준다. 그 뿐만 아니라 레몬즙을 계속 음용하면 그 소화 기관의 문제점들을 서서히 치유한다. 그래서 마침내 레몬즙 원액을 마셔도 위나 장에 통증이나 불편한 것이 없어지면 그 문제점들이 치유된 것이다.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치유를 위하여, 건강한 사람들은 모든 병의 예방 차원에서 레몬즙을 드시기를 강력 추천 드린다.

레몬즙 음용 방법은 생 레몬을 짜서 고운 체로 걸러서 모든 섬유질을 제거한 뒤 0.5~1컵을 아침과 저녁 공복에, 특히 운동하기 전에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는 것이다.

레몬즙 원액을 마시기 힘든 분들은 처음에는 물을 섞거나 양을 조절해서 몸에 맞는 음용 방법을 찾은 후 서서히 몸이 적응해 감에 따라 양을 정상으로 올리는 방법을 추천한다.

비타민 C 복용

우리 동문이신 이왕재 교수에 따르면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건강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웬만한 병의 치유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아래 유튜브 동영상 시청을 적극 추천 드린다. (<https://www.youtube.com/watch?v=vbaUd7iCz0c>)

우유 섭취

될 수 있는 대로 안 마시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첫째, 우유 속에 들어 있는 과다 영양이다. 우유는 송아지를 3개월 만에 체중을 6-7배로 키울 수 있는 엄청난 영양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성장해야 할 필요가 없는 성인들에게는 지나치게 과다한 영양 식재료이다.

둘째, 우유 속에는 IGF(Insulin-like Growth Factor)라는 성장 촉진제가 들어 있다. 이 촉진제는 더 이상 성장해야 할 필요가 없는 성인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몸에 상존하고 있는 암 세포만 성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우유 소비가 많은 국가일수록 암 환자가 많다는 것은 이미 여러가지 통계로 입증된 사실이다.

셋째, 이 세상에서 성인이 되어서도 젖을 먹는 동물은 인간이 유일하다. 송아지도 3개월 후면 이유식을 시작한다.

이 글이 동문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관하여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생각 거리(food for thought)가 되시기를 바란다. 우리 몸의 먹거리에도 이렇게 오류와 혼돈이 많이 있다면, 우리의 육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의 먹거리에는 얼마나 더 많은 오류와 혼돈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혹시 위의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의 이메일 (namoh2000@yahoo.com) 또는 (215) 688-3444로 문의 바란다.

오남환 박사는

캔사스 주립대학 박사(곡물화학)
Bestfoods(현 Unilever) 식품연구소
한국 CJ식품연구소 기술고문

“한국 부동산 팔까 말까”

폭등 집값 잡겠다고 보유세 올려 ‘고민’

미국은 부부공유재산, 국세청에 요구해야



이종건 변호사
(경영학과 84)

한국은 부부재산 별산제여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한국 거주자에 대해서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 등 최소 10억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도 해주지 않으며, 일괄공제도 2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부부재산 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는 주에 살고 있다면 상속세를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캘리포니아는 부부공동재산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누구의 명의로 돼 있든 부부공동재산이다. 따라서 사망한 배우자 재산의 절반은 생존 배우자의 소유다. 사망한 배우자 재산의 2분1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게 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등 부부재산공유제를 시행하는 주의 부부들은 한국 재산에 대해서도 사망한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만 상속세를 내는 것이 맞다.

따라서 결혼생활 중 돈을 벌어서 취득한 재산이라면 남편 단독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이므로 그중 절반만 남편재산이다. 그 50%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

만약 한국 국세청이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세심판이나 조세행정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 상속세를 절반으로 감액받을 수 있다.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사망하기 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해 놓으면 재산전체에 대한 상속세 부과를 미리

동문들 가운데 한국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국에 오기 전 살던 집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거나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을 경우 등 다양하다.

부동산을 포함해 한국의 재산은 처리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상속세율이 높다. 실제로 한국은 증여/상속이 1억원 미만이라도 세금 부과 대상이라고 한다. 본국 재산을 매각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도 만만치 않다. 최근들어 한국정부가 폭

등하는 집값을 잡겠다고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재산을 계속 보유해야 할지 고민하는 동문들도 적지 않다.

이에 동창회보는 미국(LA)과 한국(서울) 두 곳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종건 동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다. 이 동문의 기고를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1. 한국내 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12월호).
2. 한국 부동산 상속, 매매시 알아야 할 사항(1월호).

183일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혜택

30억원 초과하면 증여 상속세 50% 공동명의 많을수록 절세 효과 높아



방지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해놓지 않은 경우에도 부부공동재산이 맞으므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부부가 캘리포니아주에 같이 살고 있다면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참고로 한국의 증여세나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5억원은 20%, 5억원~10억원 30%, 10억원~30억원 40%,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상속세를 내게 된다.

상속을 받은 후에 매도할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원~4600만원은 15%, 4600만원~8800만원은 24%, 8800만원~1억5천만원은 35%, 1억 5천만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는 42%다.

양도차익 되도록 줄여야

양도차익은 취득가와 판매가의 차액이며, 상속시에는 상속재산의 가격이 취득가액이 된다. 따라서 상속 공제 한도 내에서는 상속재산의 가격을 최대한 높여놓는 것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

득세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1인 단독명의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명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된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좋고, 상속의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들이 다같이 등기를 해서 명의자가 많을수록 좋다.

한국에 183일 이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의 경우, 즉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장기보유공제를 30%까지 밖에 해주지 않으므로 그만큼 양도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183일 이상 살면서 거주자로서 매매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동문들의 전화나 이메일 문의를 환영한다.

이종건

한미 국제 법률사무소 대표
전화 213-787-3107

이메일 jklawus@gmail.com

양도차익은 소유자 1인당으로 계산한다. 즉 어느 부동산의 소유자가 1명이고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세율이 35%여서 3500만원을 내게 된다.

그런데 같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2명인 경우에는 1인당 양도이익이 5천만원이 되고 5천만원에 대한 세율은 24%이므로 2명이 각각 1200만원씩 합계 2400만원을 내게 된다. 결국 양도소



뉴욕의 자랑 ‘골든클럽’을 아시나요?

20 여년 전 40~50 학번대가 결성한 엘리트 모임
타주 동문들의 NY 방문 환영 ... 문화행사 등 안내도



받아들여 뉴욕지부의 동창회 협력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뉴욕은 지역 특성상 겨울이 매우 춥고 길다. 이에 따라 많은 동부 주민들(winter birds)은 플로리다주에서 일년의 절반가량을 보내게 된다. 골든클럽 회원들도 겨울이면 캐리비안 크루즈 여행, 머틀비치와 플로리다 골프 등 단체여행을 떠나 동문들간의 유대관계가 더욱 돈독해 진다.

특히, 2013년 발족된 컴퓨터 연구원(원장 최수용, 상대 55)은 뉴욕에서

안 좋아져 많은 동문들이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

스케줄대로 진행

골든 클럽의 장점은 매월 계획된 골프모임과 계절에 맞는 피크닉과 봄 가을의 하이킹, 겨울의 플로리다 여행 등의 행사가 스케줄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년의 동문들이 한해의 일정을 미리 계획할 수 있어 회원 가입이 늘고 있다.

해 클럽의 활동이 제약받았으나 내년 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타주 동문들의 뉴욕 방문을 언제나 환영한다”며 “뉴욕만이 갖고 있는 볼거리, 곧 박물관과 브로드웨이 방문, 오페라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해 미 전역의 동문들간 친목도모에도 힘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재 = 허유선 (생과대 83)

지금은 전연령층에 오픈, 등록회원 120 여 명 컴퓨터 연구원 두 곳 운영, 비서울대 수강 증가

뉴욕지부의 자랑 중 하나가 바로 골든클럽이다. 1998년 여름, 15명의 동문이 친목도모 및 동문회 후원을 위해 모였다. 2021년 발행된 골든클럽 주소록에 의하면 현재 동문과 가족(배우자)을 포함해 120명 가량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초대 회장은 윤정옥(약대 50, 작고) 동문. 이후 김세중(공대 50), 정택수(문리대 46), 이준행(공대 48), 정인식(상대 58), 송경택(농대 57) 회장을 거치면서 조직이 한층 단단해지고 활동이 다양해 졌다. 지금은 홍종만(공대 64) 동문이 회장을 맡고 있다.

홍종만 회장 취임

발족 당시는 뉴욕일원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동문으로 자격이 제한됐다. 당초 뉴욕지역 최고의 사교클럽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던 것.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이른바 ‘청년같은 노년’ 동문들이 아웃도어 스포츠인 골프, 등산, 바다 낚시 등을 함께 즐기면서 많은 동문들이 참가하기 시작했다. 결국 2017년 나이제한이 없어지고, 원하는 동문들은 거의 모두



만 모이다가 2015년 동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저지에 추가로 클래스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양인회(농대 58) 동문은 컴퓨터 연구원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킨 장본인으로 꼽힌다. 헌신적이고도 열정적인 가르침으로 모임을 이끌어 많은 동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주목할 점은 비서울대 출신의 참여가 크게 늘어 ‘기이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양 동문은 최근 건강이

골든클럽의 또다른 자랑은 회보 발간이다. 2010년 4월 첫 호가 나온 이후 거의 매달 발행되고 있다. 회보 편집장(윤현남, 공대 64), 편집간사(김정필, 공대 71), 편집위원 주상선(공대 73), 오성(법대 73), 김병순(사회대 82) 동문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발행부수는 100부 정도. 동문들의 집으로 우송하고 있다. 김정필 동문은 뉴욕지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회원 중에 장학재단을 만들어 후학을 양성하는 동문들도 있다. 이준행(공대 48) 동문의 ‘준이 장학재단’(2015년 설립)은 매년 5명의 장학생을 선정해 후원하고 있으며, 강에드(사대 60) 동문의 ‘에드워즈 & 인애 강 장학재단’(2017년)은 매년 12명을 뽑아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다.

한편 신년교류회는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열리지 못했다. 2022년에는 그러나 3월 26일 Atrium of Tenafly에서 가족은 물론 타주의 동문들도 초청해 개최할 예정이다. 홍종만 회장은 그동안 예상치 못한 코비드 사태로 인

2022 골든클럽 주요 일정

- 3월 신년교류회
- 4월 골프모임
- 5월 동창회 골프토너먼트
- 6월 골프 모임
- 7월 골프 모임
- 8월 골프 모임
- 8월 BBQ 피크닉
- 9월 골프 모임
- 10월 동창회 골프토너먼트
- 11월 단풍시즌 하이킹
- 11월 골프 모임
- 12월 동창회 송년회
- 1~2월 플로리다 골프여행



컴퓨터 연구원

뉴저지 / 매주 월요일
9:30 a.m. - 1:00 p.m.
뉴욕 / 매주 화요일
10:00 a.m. - 1:00 p.m.



지난 12월 11일 남가주총동창회 주관 송년모임에 참석한 동문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탄성... 환호... 폭소... 심쿵... 1952 학번부터 2011 학번까지 230여 동문 한마음 대잔치



장진영 동문이 지휘한 동문 합창단.



서방차의 열정적인 댄스공연.

남가주 총동창회 송년 대잔치가 지난 12월 11일 LA 인근 노워크의 더블트리 호텔에서 230여 명의 동문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사대 1952 학번 전상옥 동문부터 약대 2011학번 김지혜 동문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한마음 축제였다.

최용준(수의대 81) 회장은 환영사에서 “팬데믹 중에도 우리 남가주 총동창회는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동문들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동문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으로 유튜브 영상 제작, 골프 토너먼트, 자선음악회, 야유회, 원로 초청 오찬 행사 등 남가주 총동창회가 올해 계획했던 사업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박제환(문리대 75) 차기 회장은 “코로나의 답답하고 긴 터널같은 이 시기에 송년 대잔치는 우리 모두를 정신적으로 사뭇 고양시켜주는 장이 됐다”며 ‘My Way’의 한 소절을 불러 박수를 받기도 했다.

베이스 장진영(음대 88) 동문의 ‘그 집 앞’ 솔로 축가로 시작된 2부 행사는 최용준 회장, 손영아(음대 85) 부총무의 사회로 진행했다. 첫 순서의 서울대학교 동문 합창단(단장 김병완, 공대

58)은 18명 단원 모두 빨강 초록의 크리스마스 스웨터를 입고 등장해 ‘걱정하지 말아요’, ‘Deck The Halls’, 그리고 울동까지 곁들인 ‘Jingle Bells’를 선사했다. 지휘는 장진영, 반주는 황만영(음대 84) 동문이 맡았다. 소프라노 파트를 리드하고 있는 조은아(음대 89) 동문은 ‘그리운 금강산’을 불러 갈채를 받았다.

장기자랑 코너에서는 방석훈(농대 55), 방상현 상임이사 부부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듀엣을 시작으로, 주훈(음대 69) 동문의 열정적인 색소폰 연주 ‘Going Home’과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가 이어졌다. 김종하(문리대 85) 미디어 위원장, 김용진 총무, 신경섭(문리대 91) 차세대 위원장이 ‘서방차(서울대에서 방방 뜨는 차세대) 댄스팀을 결성해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를 커버 댄스 했다.

서울대의 대표적인 밴드 Sand Pebbles 4기 김인종(농대 74) 대외협력위원장이 ‘You Are Always All My Mind’와 ‘Wonderful Tonight’을 진나빛 임



70년대 서울농대 샌드페블즈를 대표해 무대에 선 김인종 동문(농대 74,기타), 최용준 회장(수의대 81, 드럼)

원 밴드와 함께 기타 연주로 노래했다. 2부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임원들이 모두 연기자로 출연한 ‘진나빛(진리는 나의 빛)’ 악극단의 ‘최진사댁 셋째 딸, 경사났네!’. 서울대 동문인 최진사의 딸 삼순이와 칠복이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코믹하게 연기해 내며 동문들에게 큰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손영아 부총무가 직접 각본을 쓰고 감독을 맡은 이 연극은 사이사이의 배경음악도 임원들이 직접 연주하는 등 수준높은 무대를 연출했다.

취재=손영아(음대 85)

벤자민 홍 부부



“오늘 동창회 데뷔하시는 분입니다.” 사회자의 한마디에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졌다. 누구?

“벤자민 홍 회장님 부부를 소개합니다.” 홍 동문은 문리대 53학번. 부부의 나이차가 50년

이라는 사회자의 설명에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마이크를 잡은 홍 동문은 미국은행 시절을 잠깐 언급하며 그때부터 자신의 좌우명이 ‘마이 웨이(My Way)’라고 했다.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아 내 갈길 내가 개척했다고 할까.

이제는 바뀌었다며 축스러운 듯 아내를 가리켰다.

“She Is (Now) My Way.”

홍 동문의 이 말에 ‘두 분이 순애보를 쓰셨네’, ‘정말 심쿵 했어요’ 여기저기서 부러운듯 한마디씩 했다.

최고령 전상옥 동문



그러자 사회자가 무대 앞으로 나오시라는 말을 건넸다. 90이 넘었

“그냥 앉아 주세요.” 전상옥 동문은 1952년 입학한 최고령자. 그래서 사회자가 특별 배려한 것이다. 그런데 벌떡 일어나 좌중을 둘러보며 인사를 하는 게 아닌가.

는데도 빠른 걸음이었다. 정정했고 또 단아한 모습이었다. 기품있게 늙으신 분이라는 걸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전 동문은 막힘이 없었고 특히 논리정연했다. 탄성이 쏟아졌다.

“나도 저 선배님처럼 늙었으면...” 건강은 타고난 듯 했다. 90평생 병원엔 아이 낳느라 딱 두 번 갔다고 털어놨다. 또 박수가 터져나왔다.

전 동문의 건강비결은 아주 소박했다. 신앙과 긍정적인 마인드. “늘 기쁘게 웃으며 살아요. 그것이 보약입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음대 송년회 80대부터 2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

80대 중반에서 2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2월 14일 LA한인타운의 용수산 식당에서 열린 남가주 음대동창회 송년모임은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거의 50명에 이르는 동문들이 모여 그간의 회포를 푸는 등 화제가 만발했다.

최고령 선배는 1956 학번의 김광은 동문. 2013년 입학한 박선우 동문은 가장 막내였으나 선배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동문들간의 끈끈한 '학우애'를 다졌다.

이날 박선우(소프라노) 동문은 이규영(테너) 동문과 함께 공연, 동문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이외에도 김원선(첼로), 최혜성(플룻), 제갈소망(피아노) 트리오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주하는 등 분위기를 달궜다. 국악계 원로 김동석

동문은 가야금을 연주해 큰 박수를 받았다.

눈길을 끈 동문은 백정현(성악 66) 백혜옥(간호대 69) 부부. 남가주 '철벽지'로 이름을 날린 백 동문은 산악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중상(?)을 입었다. 당초 독창이 예정돼 있었으나 포기, 대신 아내의 기타 연주를 곁에서 도와야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김미자 동문 후임으로 79학번의 유혜연 동문이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유 신임회장은 "남가주 총동창회 등과 연계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년모임에는 남가주 총동창회 차기회장인 박제한(문리대 75) 동문도 참석, 동문들을 격려했다.

취재=김양희(음대 77)



남가주 상대동창회 송년모임 푸짐한 경품에 래플 티켓 순식간 동나 기부금 받아 경비 충당, 회비 부담없어

남가주 상대동창회의 정기총회 겸 송년모임이 지난 12월 11일 LA한인타운의 용수산 식당에 열렸다.

총회는 양창호 원로선배(54학번)의 축사로 시작됐다. 임춘택 회장과 이청광 이사장이 지난 2년간의 동창회 활동을 설명하고 결산보고를 했다. 이날 모임에는 막내인 정정섭(90학번) 동문이 자기소개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총회의 하이라이트는 임기 2년(2022~2023)의 신임 회장 선출. 이청광 이사장이 차기 회장으로 이종렬(65학번) 동문을 강력히 추천, 참석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새 이사장은 후임이 선출될 때까지 당

분간 현 이사장이 계속 맡기로 했다.

2부 여흥순서는 밴드와 함께 전문 사회자의 진행으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이날 경품이 푸짐히 쌓여있어서인지 래플 티켓 판매가 얼마안가 동이 났다. 행사 주최 측은 3,000 달러 어치의 경품을 준비했다고 귀띔했다.

행사 참석 동문들에게는 모두 커피 세트와뱅크오브호프의 2022년도 고급 캘린더가 제공됐다.

한편 이번 행사는 기부금으로 모든 경비를 충당해 동문들의 회비납부 부담이 없었다.

취재=임춘택(상대 68)

워싱턴 D.C. 송년회



젊은 동문 대거 참여로 '활기' 모교출신 박사과정 장학생 9명 선발

워싱턴 D.C. 동창회(회장 박상근, 법대 75) 송년모임이 지난 12월 11일 웨스틴 타이슨스 코너에서 열렸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년만에 열렸지만 2000년대 학번의 젊은 동문들이 많이 참여해 활기 띤 모임이 됐다.

안선미(농대 65) 전 회장의 추모

현(경영 84) 동문이 앞으로 5년동안 매년 1,000 달러씩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장학사업이 지속되면 다섯 동문의 참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2부 여흥순서에선 그동안 소그룹모임을 통해 연습한 기타연주, 중창, 탕고 등의 발표시간이 있었다.

김찬 동문 부부의 탕고 '압권' 안선미 전 회장 추모 순서도

순서엔 모두 숙연한 분위기에서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연방식품의약품(FDA)에서 25년 넘게 근무하고 은퇴한 안 동문은 지난해 10월 오랜 암 투병 끝에 타계했다. 고인은 2011년부터 동창회에 참여, 이사과 재무, 그리고 회장을 지내는 등 동창회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올해도 9명의 모교출신 장학생을 선발해 1인당 1,000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성렬(법대 00), 박예리(외교학, 07), 정재훈(기술경영학 08), 박기현(외교학 08), 백술(사회복지학 09), 백승하(물리학 11), 김종찬(동물생명공학 14), 김지인(기약 15), 여선형(기약 17).

이날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백순(법대 58), 정원자(농대 62), 오인환(문리대 63), 이윤주(상대 63), 남욱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김찬(공대 68) 동문 부부의 볼룸 댄스. 정열적인 탕고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부부의 모습에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기타반주에 맞춰 진행된 싱얼롱



장학금 수여자. 왼쪽부터 박예리(외교 07), 백승하(물리학 11), 박성렬(법대 00), 박기현(외교 08), 김종찬(동물생명공학 14).

순서엔 아침이슬, 등대 등 7080 세대에 익숙한 노래들을 불러 분위기를 달궜다. 중창단의 캐롤송 공연으로 흥을 한층 돋아주는 등 모두가 참여한 훈훈한 연말모임이었다.

취재=한정희(미대 81)

“밤을 잊은 그대” 흥겨운 한마당 대잔치



시카고 동창회의 역대 회장단과 임원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열린 총회겸 송년파티에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0명이 넘는 동문들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오징어 게임 등 풍성 ... 타계한 동문들 추모엔 '숙연'

11월 28일 나일스에 소재한 Chateau Ritz Banquets에서 열린 송년모임은 1부 총회와 2부 여흥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총회는 교가 제창에 이어 시카고 원로 목사인 서기곤(법대 58) 동문의 축복기도로 시작됐다.

사회자가 올 한해 운명을 달리하신 동문들을 한 분 한 분 호명하자 행사장은 일순간 숙연해졌다.

이날 총회에선 새해 김유하(공대 66) 동문으로부터 회장직을 물려받는 김승주(간호대 69) 차기회장이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며 협조와 도움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박종희(의대 69) 세종문화회 사무총장이 올 한해 문화회가 진행한 프로그램과 기금모금 상황을 보고, 큰 박수를 받았다.

2부 여흥 프로그램의 주제는 '60년대로 돌아가자(Back to the 60s)'. 골든클럽이 주관하는 라인댄스에 이어 '오징어 게임'이 펼쳐졌다. 술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쳤는데도 숨지 못한 동문들은 게임에서 탈락하는 불운을 맞았다.

그래도 65학번 이전 동문들에게엔 패자부

활의 특혜가 주어졌다. 60년대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우리의 자화상을 기억하며 선배들에게 '한 번 더' 찬스를 부여한 것이다.

팔도유람게임도 참석자들의 흥을 한층 돋운 프로그램. 서울 경기 충청과 호남 영남 강원 동문들의 대결로 분위기가 고조됐다.

이날의 주제에 걸맞게 DJ 봉운식(사회대 96) 동문은 주로 옛 노래를 들려줘 원로선배들로 하여금 감회에 젖게 했다.

폴 앵카의 '다이애나', 비치보이스의 '서핑 USA', 로이 오비슨의 '프리티 우

민' 등이 흘러나오자 따라 부르며 옛 추억에 잠기기도.

오봉완(법대 53, 조지타운대 석좌교수) 동문은 "장소 선정부터 음식, 여흥, 어느 것 하나 나무랄데 없이 훌륭했다"며 주최 측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처음 동창회 모임에 참석했다는 유동완(수의대 68, 일리노이대 교수) 동문은 "정말 내겐 의미있는 행사였다"며 김유하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고마움을 전했다.

취재=김훈태(사회대 84) 총무



김유하 동창회장(왼쪽)과 장윤일 전임 회장.



김승주 차기회장.



이날 여흥순서의 하이라이트인 '오징어 게임' 장면. 65학번 이전 선배들에게엔 패자부활의 '특혜'가 주어졌다.



2021 장학금 수혜자들이 김윤하(가운데) 동창회장, 한경진(오른쪽) 장학금관리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모교, 동문자녀 등 11명에 장학금

시카고 송년모임의 하이라이트는 장학금 수여식. 올해는 모두 11명이 선정됐다.

한경진 장학금관리위원장에 따르면 시카고 동창회의 장학기금은 11월말 현재 20만 달러가 넘는다.

장학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장학생들은 다음과 같다.

강혜민(미시건대), 김가은(UI 어바나

삼페인), 김서현(하버드), 김유민(UI 시카고), 김재광(UI 어바나 삼페인), 박수현(UI 어바나 삼페인), 이민서(미시건), 장동혁(노터데임), 전지혜(UI 시카고), 차지인(노스웨스턴), 최민경(애들러).

한편 음악박사과정의 김가은 장학생은 이날 섬세한 테크닉으로 이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6번을 연주해 큰 감동을 선사했다.



지난 5일 열린 조지아 동창회 송년모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얼굴 보니 좋구나 좋아~” 150여 명 참석 ‘즐거운 한때’



배혜영 회장

아이브스 컨트리클럽 하우스에서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해 송년회를 건넌 뿐 탓인지 2년 만에 열린 이날 모임에는 150명 가까운 동문 및 동문가족들이 참석, 큰 성황을 이뤘다.

1949년 입학한 90대 최고령 선배부터 2003년 입학한 30대 젊은 후배들까지 50년을 아우른 이날 모임에서 모처럼 만난 동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얘기꽃을 피우며 삼삼오오 사진을 찍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조지아 동창회 송년모임이 지난 5일(일) 오후 5시부터 존 스크릭 세인트

식사 후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세계인이 놀라는 한국사 7장면’ 저자인 애틀랜타중앙일보 이종호 대표(동양사학과 81)의 ‘이민자를 위한 우리 역사’ 특강에 이어 장학퀴즈 스타일의 재치문답 게임,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추억의 딱지치기 등 다양한 여흥이 이어져 웃음꽃을 피웠다.

한편 이날 송년모임에선 내년부터 조지아동창회를 이끌어 나갈 새 동창회장으로 배혜영 동문(음대 기악과 79)이 선출됐다.

지난 2년간 동창회장으로 봉사했던 김재호 회장은 클리브랜드로 직장을 옮기면서 애틀랜타를 떠나게 돼 아쉬움을 자아냈다.

신임 배혜영 회장은 “앞으로도 많은 선배님들이 보람과 기쁨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동창회가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모임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오징어게임에 등장한 추억의 딱지치기 놀이.



뷔페식으로 준비된 식사 시간.



애틀랜타 중앙일보 이종호 대표가 역사 특강을 하고 있다.



임원진들이 참석 동문들의 이름표를 찾아 나눠주고 있다.

비대면 연말 총회 ... 장학금 수여

김혜경 · 김재관 · 강민정 등 박사과정 동문



맨 윗줄 왼쪽부터 차재호(농공 84), 용정식(농화학 86), 성욱진(치대 87), 왕규현(의대 56), 양한승(임산공학 89), 김재관(재료공학 15), 김혜경(의류 12), 이한솔(바이오 소재 09), 함대영(수리과학 12), 송창원(문리 53), 안유이(의류 17), 변우진(인문 81), 정영환(법대 90), 변정민(기계공학 88), 문성인(공업화학 88), 박현아(공업화학 88), 장윤정(식품영양 10), 김혜정(언론정보 09), 황효숙(사대 65), 송세진(치대 78), 남세현(공대 67). 조은경(영문 04) 동문은 카메라가 켜지지 않아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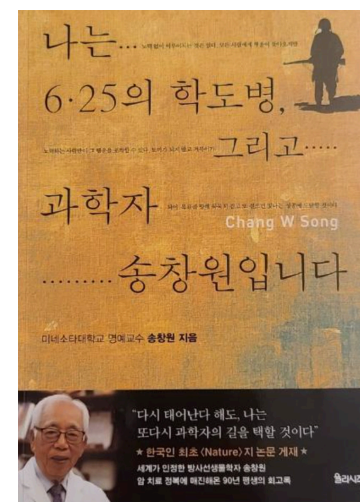
코로나가 뭐길래...
미네소타 동창회의 연례총회가 지난 12월 10일 비대면 모임으로 열렸다. 당초 미네소타 대학 프레지던트 룸을 빌려 성대하게 대면 행사로 치를 계획이었지만 막판에 줌으로 대체했다. 델타, 오미콘 등 갑작스레 코로나 변이가 나타나 동문들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다.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 21명이 참가한 이날 총회는 차재호(농공 84) 회장의 환영사를 겸한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서울대 교가 제창, 임원소개를 거쳐 지난 1년 동안의 사업경과보고를 했다. 총회는 코비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사업을 펼친 동창회의 활동을 되돌아봤다.
상반기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거의 모든 활동이 줌으로 이뤄졌다. 매달 경제, 정치, 문학, 생명과학, 법학 등 다양한 주제로 줌 모임을 가지며 동문들의 결속을 다졌다.
하반기에는 대면모임을 위주로 한 활

송창원 박사의 삶의 여정에 '몽클' 6·25 학도병에서 과학자의 꿈 이뤄



연말총회의 하이라이트인 장학금 수여식. 왼쪽부터 성욱진(장학위원), 김혜경(의류 12), 김재관(재료공학 15), 강민정(농경제 15), 용정식(장학위원).

동을 펼쳤다. 9월 중순 야유회에는 5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모처럼 즐거운 한때를 가졌다.
이날 총회의 하이라이트는 장학금 수



송창원 박사의 자서전 '6.25의 학도병과 과학자의 꿈'.

여식. 장학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김혜경(의류 12), 김재관(재료공학 15), 강민정(농경제 15) 등 3명의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됐다.

이날 총회의 주제강연자는 미네소타대 의과대학 명예교수인 송창원(문리 53) 박사. 최근 발간한 자서전 '6.25의 학도병, 과학자 송창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다.
일제 강점기의 어려운 시절을 살아온 송 박사는 한국전쟁이 터지자 학도병으로 참전, 나중에 소위로 임관했다. 강원도 고성 전투에서는 폭탄 파편이 척추 옆에 깊이 박혀 지금도 공항보안검색대에서 검사관이 몸을 뒤지는 등 해프닝이 벌어진다.
전쟁이 끝난 후 학업에 복귀한 송 박사는 문리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의 길에 올랐다. 과학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방사선 치료 분야의 새로운 장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 송 박사는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논문을 게재, 과학계를 놀라게 한 석학이다.

취재=용정식 박사(농대 86)

원고 모집합니다

| | |
|--------------|--|
| 주제 |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
| 글의 양 |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
| 사진 |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
| 보내실 곳 | 원고와 사진은 snuausa30@gmail.com 로 보내주세요. |

노현숙의 포토 에세이



연초록빛 소용돌이가 하늘과 땅을 뒤덮었다. 마치 빛의 덩어리가 춤을 춘다고 할까. 밤하늘에 커튼을 치듯 일렁이는 오로라는 빛의 향연이다.



오로라와 함께 춤을~ 넘실넘실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빛

측의 확률이 좋다고 한다. 여름에도 오로라가 있긴 하지만 북극 근처로 가면 백야현상으로 관측할 수가 없고 10~11월은 비가 잦아 추천하지 않는다.

몇해 전 캐나다 북쪽에 위치한 Yellowknife라는 곳에 가 오로라를 찍었다. 이곳은 겨울철이 비교적 건조해 4~5일을 묵으면 오로라를 만날 수 있다. Calgary를 경유, 소형 비행기로 갈아 타야 하는데 작은 도시인만큼 교통은 그다지 좋은 곳은 아니다.

한번은 9월 하순에 갔는데 가을 출사는 그런대로 덜 심심했다. 오로라가 밤에 찍는 것이다 보니 낮에는 차를 빌려 근처를 하이킹하며 가을 풍경을 찍고 이른 저녁을 먹고는 낮에 봐둔 호숫가나 전경이 근사한 장소에서 오로라를 사냥한다. 호숫가를 잘 이용하면 오로라가 호수에 반영돼 멋진 작품이 될 수 있다.

3월에 갔을 때는 흰 눈이 쌓인 바닥에 오로라 초록 빛이 반사돼 환상적인 풍

경을 찍을 수 있었다.

눈 온 길을 운전하는 것이 위험해 그 동네 Aurora Village에서 운영하는 패키지를 사면 편리하다. 호텔 숙박과 함께 방한복, 장화, 장갑을 공급해 주고 저녁 7시에 호텔로 버스가 와서 데려 가고 12시에 다시 호텔로 데려다 주었다.

오로라가 12시가 넘어서도 활발한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추가비용을 내고 시간을 연장하기도 한다.

오로라 빌리지 안에는 군데군데 인디언 티피가 세워져 있고 난로와 따뜻한 차와 간단한 스낵이 준비되어 있다. 개인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가면 행동이 좀더 자유스럽긴

하지만 비용이 더 들고 생소한 곳에서 밤에 눈길을 운전하고 다니기는 부담스럽기도 하다.

사람들은 신비한 것을 보면 사진을 찍고 싶어한다. 요즘같이 핸드폰 만능시대가 되면 오로라도 핸드폰으로 짤각! 그러나 가능하지 않다. 집에서 가

기 전에 장노출 할 수 있는 앱을 다운 받아 가지고 가야한다. 왜냐하면 핸드폰은 하늘을 어둡게 장노출 하여 찍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5초 정도의 장노출을 하려면 카메라를 어디엔가 고정시키지 않으면 다 흔들리는 사진이 되기때문에 간단해도 정식 카메라와 삼각대를 하나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Yellowknife의 겨울은 매우 춥다. 섭씨 -25도는 보통이니 방한복과 특별히 모자와 장갑을 잘 챙겨야 한다. 추운 날씨에서는 배터리 소모가 매우 빠르니 여분의 배터리도 챙겨 따뜻하게 품에 품고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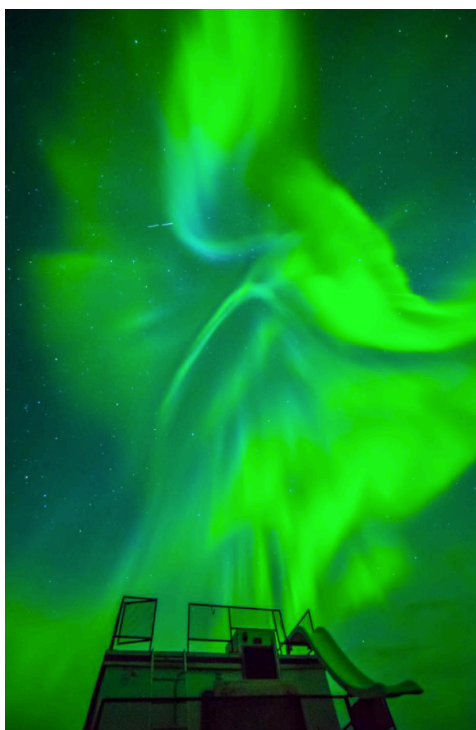
오로라 여행은 사진을 찍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오늘도 내일도 대동소이한 기후와 환경에서 벗어나 차갑고 깨끗한 공기와 싱그러운 이마반이를 하며 내가 내 자신을 만나 보는 경험이다.

신비한 자연현상에 대한 놀라움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 겸손해 지며 그래서 내 가정과 친구가 더욱 귀하게 느껴짐을 체험하는 화합과 화해의 경험이다.

매번 갈 때마다 남편과 같이 가지 못한 것이 후회돼 언젠가 한번은 꼭 같이 오로라를 보러 가려고 마음 먹고있다.

현재 Aurora Village는 코로나 때문에 폐쇄된 상태다. Yellowknife 또한 비거주 관광객은 출입이 불가능하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퇴치돼 오로라 관광의 길이 열리기 바랄 뿐이다.

sony a7rii
16mm, f:4, iso 3200, 5s



오로라는 신비로운 빛의 향연이다. 생명의 탄생과 환희를 노래하는 듯 하다.

밤하늘을 춤추는 녹색의 저 구름은 대체 무엇인가?

도무지 현실감이 들지 않는 현상을 보며 늘어선 사람들은 환성을 질러댈 뿐이다. 이름하여 오로라(aurora)!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플라스마 일부가 지구대기권의 기체와 마찰해 빛을 내는 현상으로 'Northern Lights'라고도 불린다. 신비한 초록색을 띠는 것이 특징인데 오로라가 매우 활발하면 붉은색을 띠기도 한다. 푸르고 붉은색이 마치 커튼처럼 온 하늘을 뒤덮으면 흥분은 극에 달한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실력은 안되지만 어쨌든 어두운 하늘에 춤추는 오로라는 수많은 전설과 신비한 이야기를 품고있다.

일본사람들은 오로라를 보고 아기를 가지면 천재가 나온다는 속설이 있어 오로라빌리지는 많은 일본 신혼여행자들이 찾는다. 한국에서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 여기저기서 우리말이 들려온다.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지역은 주로 북극과 남극이 가까운 곳, 어두운 밤하늘이 있는 곳이면 된다. Arctic Circle의 노르웨이 북쪽, 아이슬란드, 알래스카의 Fairbanks 근처, 캐나다 북쪽 등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다.

9월 중순과 1~3월이 날씨가 건조해 관

인간의 편견을 배우는 AI

‘교수’ 검색하면 여자는 10%에도 못미쳐



송명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주립대 교수

진 가능성은 여성에게 훨씬 높고, 결과적으로 심장마비가 발생할 경우 여성의 사망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데이터 편향성으로 인한 문제는 AI가 적용되는 모든 영역에 잠재되어 있다. 하버드대 스위니 교수는 지난 2013년 흑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이름을 검색할 경우 백인들이 사용하는 이름에

한다.

이런 점을 인식하여 최근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일반데이터 보호규정(GDPR)은 신용카드나 주택자금 융자금리와 같은 AI 알고리즘에 기반한 결정에 대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지 않더라도 AI

라 선별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한 보건당국은 AI가 선별한 지역이 소득이 낮은 곳에 위치한, 이익률이 작은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런 지역의 식당들이 과도하게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역별 검사횟수의 상한선을 AI 알고리즘에 설정하였다.

인력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줄이고자 한다면 지원자의 성별이나 인종을 고려하지 않도록 AI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

실제로 유니레버는 이와 같은 채용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고용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동시에 채용된 인력의 성별, 인종별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여느 기술과 마찬가지로 AI가 지닌 가능성을 인류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일은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 그리고 가치판단을 배제한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수정하려는 인간의 노력에 달려 있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인해 부각된 미국 사회의 흑인 인종차별 문제에서 드러난 것처럼, 인간 무의식에 내재된 편견은 인식하기도 쉽지 않거나 편견을 편견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이다.

플로이드는 지난해 5월 위조지폐사용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백인경찰관의 과잉진압으로 목이 짓눌려 숨졌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계기로 미 전역에서 유색인종에 대한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편향된 데이터는 치명적 결과 초래 오진 가능성도 여성이 훨씬 높아 인식 쉽지 않아 자칫 갈등 부추겨



교육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국 대학 종신교수 중 39%, 종신교수 트랙의 50%가 여성이었다. 그러나 ‘교수’란 단어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남자 교수의 이미지가 대부분이고 여자교수는 10%에도 못 미친다.

검색엔진이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보여주는 이유는 인공지능(AI) 기계학습 데이터에 나타난 선입견, 편견 등이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편향된 데이터에 의존한 AI시스템은 종종 인간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편견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의료 분야에서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심장마비’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구글 이미지엔진은 대부분 중년 후반의 남자가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진을 보여 준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혈관질환은 미국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이며, 특히 젊은 세대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마비를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도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심장질환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가 대부분 남성의 것이어서 여성에 대한 예측모델의 정확성이 잘 검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수의 여성(특히 젊은 여성) 심장마비 환자는 남성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가슴 통증이 아니라 위통, 숨 가쁨, 구역질 등의 비전형적 증세를 수반한다. 이로 인해 심장마비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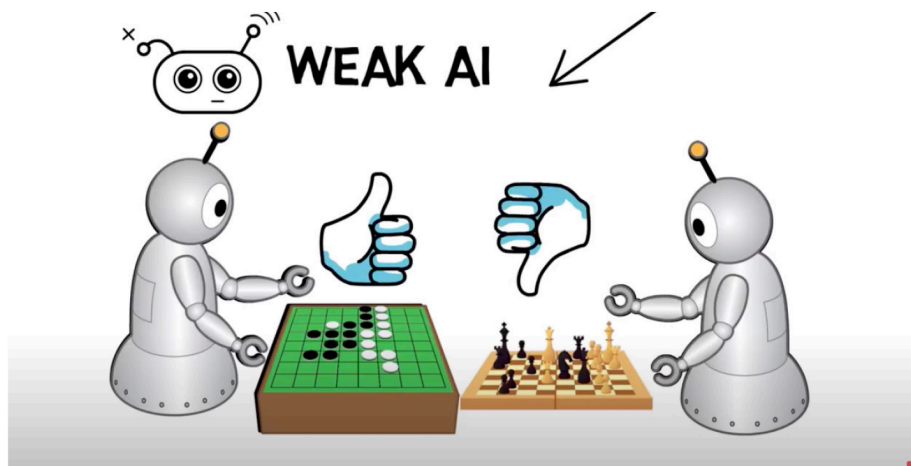
비해 ‘체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가 눈에 띄게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현존하는 AI 안면인식 시스템은 백인 남성의 얼굴을 여성이나 다른 인종의 얼굴보다 더 정확하게 판별하는데 이 역시 기계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편향성 때문이다.

신용평가, 대출심사를 담당하는 AI시스템은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취약계층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많은데 이는 신용카드나 전자결제 데이터는 풍부한 반면 현금 결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은 데 기인

알고리즘이 여과 없이 적용되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적절한 개입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작위로 식당들을 선택하는 대신, AI를 사용하여 위반 확률이 높은 식당들을 예측하고 이에 따



송명국 박사는

- * 인문대 (85).
- * 캔자스 주립대학 경영학 박사.
- * 캘리포니아 롱비치 주립대 경영대학 교수.

구독 및 광고 문의는
213-503-6964
hongsunrye@gmail.com

“사후 세계는 있는가”

과학적인 연구 잇달아 ... 임상체험 수기도 출판 육체 이탈한 영, 신비한 경험도 자주 보고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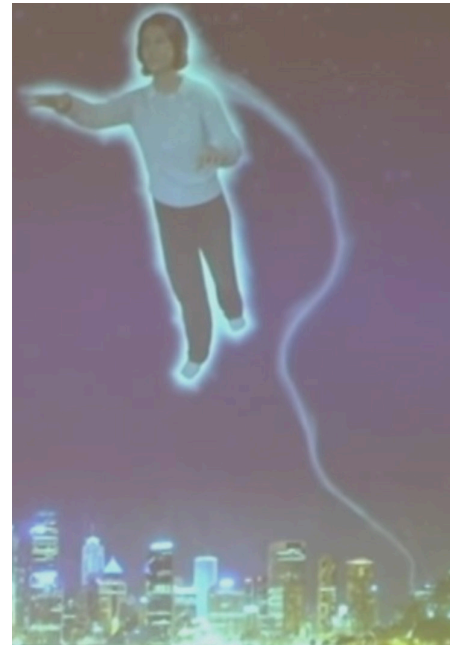


김자성
정신과 의사
(의대 76)

필자는 10 여년 전부터 사후세계를 시사하는 연구들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 인연의 끈은 이렇다. 의예과 시절 매주 기독교 학생회가 주관하는 독서토론 세미나에서 책을 같이 읽고 토론하는 재미에 푹 빠져 들었는데 여기서 시작된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져 어디에 살든 소규모 북클럽을 시작하고 이끌어 왔다.

이와 같은 기독교 신학 공부는 비교종교학과 영성 일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2011년 쯤 지역 의사 친구들을 모아 새로 시작한 북클럽에서 Deepak Chopra 가 쓴 ‘How to Know God’ 라는 영성의 발달단계에 대한 책을 아마존에서 단체 주문해 토론한 적이 있었다.

‘사후세계의 비밀’ ‘천국을 보았다’ 번역 ‘9분간의 여행’은 심정지 상태의 기록



얼마후엔 초프라가 서문을 써 준 Gary Schwartz의 ‘Afterlife Experiment’ 라는 책이 관심있을 책으로 소개되어 이 분야의 연구에 처음 노출되었다. 그 후 ‘Afterlife Revealed’ 라는 책을 직접 번역, ‘사후세계의 비밀’ 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기도 했다.

이어 신경외과의사의 임상체험 수기인 ‘나는 천국을 보았다(Proof of Heaven by Eben Alexander)’ 를 번역 감수한 인연도 있어 이를 주제로 한 북토크 쇼에도 참가했다. 패널에는 성공회 신학대 김민웅 교수, 서울대 소화기 내과 정현채 교수와 필자가 참가했는데 지금도 유튜브에서 그 때 한 토론을 볼 수 있다. 정현채 교수는 한국서 이와 연관된 강연을 수백 회 하며 이 분야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필자는 그 후 이런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자아 초월심리학’ 공부에 매진했다. 이런 인연으로 이 분야 최고의 이론가인 캔 윌버의 저술들을 접하게 됐다. 윌버는 하늘 아래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종교, 철학, 심리학 등을 통합해 설명했는데 내가 평생 궁극적으로 알고자 추구해왔던 관심에 대한 큰 그림의 모습을 체계있게 보여줬다. 이처럼 ‘사후세계를 시사하는 과학적인 연구들’ 은 내 개인의 정신적 발달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이자 퍼즐조각같은 역할을 했다.

이 분야의 연구에 매달린 전문가들은 상당수다. 이런 체험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나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심대한 삶의 변화를 가져다준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체험하게 되면, 이는 종교적인 체험에 준하는 경험이어서 일상적 가치를 넘어 더 깊은 궁극적인 가치에 눈을 뜨게 해주기

때문이다. 첫째, 가장 많은 연구자료가 축적돼 있는 분야는 임상체험이다. 최초의 연구가 시작된 배경에는 흥미있는 스토리가 있다. 조지 리치(George Ritchie)의 이야기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앞두고 그의 아버지는 특수 기술자로 군에 징집된다. 이에 자극



받은 조지도 20살의 젊은 나이에 자원 입대한다. 당시 그는 의예과를 마치고 의대 합격통지를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군의관이 크게 부족한 군 당국은 그에게 의대에 입학, 군의관이 돼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의대진학의 꿈에 부풀었던 리치는 그러나 텍사스의 거친 날씨 탓에 폐렴에 감염, 섭씨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게 된다. 페니실린이 개발되기 전이어서 그는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이른다. 거의 9 분 동안이나 사경을 헤매

게 된 것이다. 이 사이 그의 영적 실체는 몸을 떠나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다. 리치는 ‘Return from Tomorrow(9분 간의 여행)’ 에 자신의 경험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마치 영화를 보듯 영적 자아가 자기 몸을 찾아 나서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죽은 것으로 판단한 군



의관에게 한 의무병이 에피네프린 주사를 써보자는 제안을 한다. 이를 받아들인 군의관이 주사를 하자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다.

나중에 정신과의사가 된 리치는 여러 모임에서 신앙간증을 하듯 자신의 경험을 기회있을 때마다 하게 되는데 같은 대학의 젊은 철학교수 Raymond Moody가 그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의대에 진학, 정신과의사가 돼 임상체험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다.

한편 Elizabeth Kubler-Ross는 죽음

에 이르는 5 단계 이론을 정립해 유명한 정신과 의사다. 그 역시 임상체험을 한 환자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서 이와 연관된 책을 출판한다. 이 두 분이 독자적으로 이 분야를 개척한 것이다.

이들은 연구를 통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이라는 점을 여러 저술을 통해 밝히고 있다. 임상체험 동안 생시에 모르던 내용을 알게 돼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최근에는 주로 심장병, 마취과 의사들을 포함 여러 연구자들이 대규모로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나온 자료는 크게 두 부류다. 하나는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쓴 자서전적인 글이다. 대표적인 것들 중 소개할 만한 책은 Eben Alexander의 ‘Proof of Heaven’ (나는 천국을 보았다), Anita Murjani의 ‘Dying to Be Me’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등이다.

알렉산더 박사는 본인이 신경외과 의사로 뇌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뇌활동 없이는 의식이 있을 수 없다는 세계관을 갖는데, 본인 자신의 생생한 임상체험을 통해 세계관이 바뀐 경우라서 의미가 더 깊다.

아니타 무르자니는 임파선 암 말기 환자. 임상체험 후 암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된 사례다. 질병과 불안에 내몰렸던 그녀의 삶의 자세, 그리고 불안의 근본적 해소에 따른 면역계의 반응 등, 기적적 치유의 사례여서 읽을 만하다. 다음 호엔 임상체험의 공통적인 체험에 대해 또 다른 중요한 분야인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연구’ 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박평일
(농대 68)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마라
일도 참해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 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며칠전 S 목사와 함께 식사중 한국의 대표적인 수필가 피천득 교수와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의 인연에 대한 일화대화 주제로 떠올랐다.

사실인즉 내가 먼저 피천득 교수의 수필집 '인연'을 읽으며 알게된 피 교수의 홍콩 유학시절 만나게 된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그의 인연에 대한 말을 꺼냈다. 그러자 S 목사가 노년기 피천득 교수의 집을 찾아가 만나보았던 일화를 이렇게 털어놓았다.

"피 교수의 서재 책꽂이 앞에 스웨덴

영원한 연인 황진이에게 띄우는 글

출신 미녀 영화배우 잉그리드 버그먼 사진액자들이 (어린 시절부터 장년기 까지) 진열되어 있어서 놀랐어요. 아마 그 나이에도 젊은 시절 우상이었던 잉그리드 버그만을 사모하고 있구나 하는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정상적인 남자들이면 누구나 전설속 여인 한 명쯤은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간다. 사랑과 사모함에 무슨 나이가 있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내가 글을 통해서 알고있는 피천득 교수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뛰는 청춘의 가슴과 낭만을 평생동안 잃지 않고 살다갔던 이 시대의 영원한 낭만파 작가다.

그가 그렇게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심상한 가슴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잉그리드 버그먼! 나도 젊은 시절 '누구를 위해 좋은 울리나' 영화를 보며 여자 주인공 잉그리드 버그만의

청순한 미모에 완전 반해버렸던 사람이다.

그 후부터 '어떤 여자배우를 가장 좋아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아무런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이 '잉그리드 버그먼'이라는 이름이 입안에서 자동적으로 흘러나온다. 지금도 그때 그녀를 좋아했던 초심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다고 해서 잉그리드 버그먼을 좋아했던 황진이와 감히 비교할 수 있겠는가?



나는 황진이를 직접 만나본 적도, 그녀의 인물을 본 적도 없다. 그러면서도 그녀가 남긴 시조들을 통해 그녀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느낄 수 있고, 그녀의 그림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녀의 자유혼을 부들부들 안고 밤을 새우며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출 수도 있다.

나는 한국 남성들의 이상적인 여성상

인 춘향이 학파가 아니다. 나는 마냥 순종과 복종으로 일관하는 순정과 춘향이 타입보다는 비록 때론 골치가 좀 아프더라도 자유롭고 반항적인 황진이 타입을 더 좋아하는 황진이 파다.

황진이는 서구 페미니즘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된 노르웨이 작가 헨릭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에 나오는 주인공, 사랑을 위해 가출을 택했던 노라의 한국판 여성이다.

노라가 기독교 교리가 만들어 놓은 '인형의 집'에 갇혀있던 유럽 여성들에게 페미니즘의 햇살을 높이 들었던 입센의 작품속 가상적 여성이라면, 황진이는 공자가 만들어 놓은 '인형의 집'에 갇혀있는 조선 여성들에게 페미니즘의 햇살을 직접 온 몸으로 보여주었던 조선의 여성이었다.

황진이는 땅 위에 서서 하늘에 뜨고 지는 태양을 쳐다보며 가슴만을 애타게 조이는 소극적인 춘향이가 아니었다. 황진이는 두 어깨쭉지에 스스로 두 날개를 달고 태양을 향해, 하늘을 훨훨 날아갔었던 적극적인 자유혼의 소유자였다.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그러나 자유가 없이는 절대로 사랑에 빠질 수가 없다.



허유선
(가정대 83)

나의 전업주부 경력은 27년이다. 그래도 틈나는대로 동창회에 나가 봉사하는 등 나름 보람있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한다. 내겐 꿈이 있었다. 언젠가 전업주부에서 벗어나면 나도 집 밖에서 직업을 가져보겠다는, 그런 꿈이다.

돌이켜 보면 전업주부가 받는 노동의 댓가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priceless) 참으로 귀한 것이다. 감성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할까. 아이들을 키우며 얻는 기쁨과 자부심은 덤이다. 지나고 보면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전업주부는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나는 장담한다.

나는 아이가 다섯이다. 식구가 부부 합해 일곱이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여섯. 그런데 자동차는 딱 다섯 대다. 그것도 모두 브랜드 똥차들이다.

늘 자동차 한 대가 부족해 아침 출근시간이 되면 전쟁터를 방불케한다. 누가

나의 전업주부 탈출기

무슨 차를 타고 나가고, 어떤 차는 정비소에 가야되며, 다른 차는 엔진체크에 경고등이 들어와 타기 겁나고.

우리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엔 뉴저지주 인스펙션이 필요없는 것도 있었다. 차가 너무 오래돼 아예 검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차를 우리 아이들이 겁도 없이 타고 다녔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우리 속담이 딱 들어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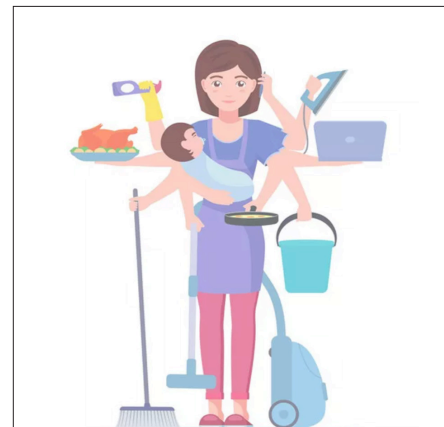
상황이 이렇진대 자동차와 관련한 에피소드가 적지 않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비에 흠뻑 젖은 가방을 들고 왔다. 에어컨이 없어 양쪽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운전을 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는 것. 운전 중 오른쪽 창문을 올릴 수 없어 가방이 그대로 폭우에 노출됐다. 수동식 고물차여서 손으로 핸들을 올려야 했는데 운전 중 그게 어디 가능했겠는가.

나 또한 운전하다 길에 차를 세우고 타이어에 바람을 넣고 하는 일 따위는 다반사였다. 그때마다 '내 어디 가서 한달에 천불이라도 벌어, 새 차를 리스해 타고 다니니라' 몇 번이고 다짐했다. 그러나 현실은 늘 나를 외면했다. 일자리가 있어도 전업주부여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또 에너지도 이미 거의 바닥난 상태였으니까.

나는 때를 기다렸다. 막내가 12학년

졸업할 때까지. 지난해 드디어 '꿈'을 이뤘다. 막내가 대학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전업주부였던 내가 집밖으로 나가게 된 것도 남편 덕분이기도 했다. 팬데믹으로 인해 남편이 갑자기 재택근무를 하게 된 때문이다.



내가 얻은 첫 일자리는 인구 센서스 조사사무원이다. 그 뿐이 아니다. 아마존에서 샤퍼(shopper) 일자리를 얻었다. 팬데믹 덕분에 수요가 많았던 까닭이다. 모두 지난해 8월에 벌어진 상황이었다.

두 일자리 모두 스마트폰으로 해야 하는 직업이어서 몸보다 눈이 더 먼저 혹사를 당했다.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 소셜시큐리티

오피스도 다녀왔다. 나는 시민권자가 된 이후 23년 동안 학생비자 받았을 때의 소셜 번호를 사용해 왔다. 그런데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선 먼저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 몰랐다. 신분이 외국인에서 미국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일의 공통점은 '보스=스마트폰, 오피스=내 손바닥'이란 것이다. 전업주부로 살다 보니 집 밖의 세상을 알 턱이 없었다. 우리가 스마트폰의 노예가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왔던 거다.

센서스 조사사원은 두 달 정도 한 후 끝났다. 아마존 일은 처음엔 생각보다 힘이 들었다. 고객이 주문한 물건의 바코드가 딱 맞아야 하는 등 이 일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일년 정도 지난 지금은 거의 경쟁이 수준으로 급성장했다. 이젠 고객의 구매성향에서부터 그 집의 식탁까지 상상하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다.

아마존의 베니핏을 받는 것에서도 자부심을 느낀다. 아마존이란 대기업에 소속감을 느껴서다.

바람대로 전업주부를 탈출해 소위 '커리어 우먼'이 됐지만 나는 여전히 타이어 경고등이 들어오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닌다. 일하느라 바빠서 자동차 리스하러 갈 시간이 없어서다.



이 종 호
(애틀랜타중앙일보 대표 · 동양사학과 81)

“애틀랜타 어때요?”

리 부부도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캘리포니아는 멋졌다. 그래도 가끔씩은 뉴욕 생각이 났다. 정작 있을 땐 ‘애개, 세계 최고 도시라면서 이게 뭐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곳이다. 낡은 지하철, 지저분한 도로, 무질서한 보행자, 최악의 주차비, 좁고 음산했던 날씨 등등.

하지만 떠나오고 나니 생각나는 건 그게 아니었다. 넓고 푸른 롱아일랜드 백사장, 아름다운 교회, 숨막히는 가을 단풍, 백설 분분 형형색색 겨울 정취 같은 것들만 수시로 떠올랐다. 7번 전철, 플러싱, 베이사이드, 그리고 맨해튼 42번 가도 아련한 그리움으로 피어나곤 했다.

1년 전부터는 LA를 떠나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다. 애틀랜타는 미국 동남부의 거점이다. 동남부란 조지아, 테네시, 남북 캐롤라이나, 앨라배마, 플로리다 6개주를 말한다. 조지아는 남북전쟁 때 남군의 중심이었고 최후의 보루였다. 그만큼 남부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다.

애틀랜타는 조지아 주도로 1996년 올림픽 개최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기업들이 다투어 진출하고 인구도 비즈니스도 성장 속도도 가파르다.

그 대열에 한인들도 있다. 이미 LA-뉴욕에 이은 세 번째 한인 밀집지역으로

자리를 굳혔다. 저렴한 주거비,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는 숲과 나무, 사철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는 조지아의 가장 큰 매력이다.

2020년 12월에 왔으니 애틀랜타 생활 꼭 1년이 됐다. 살아 보니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편하고 좋다. 나서면 공원이고 하이킹 트레일이다. 훌륭한 골프장이 널렸고 가볼 만한 유적지, 명소도 넘쳐난다. 유명 한인 마켓도 몇 개씩 밀집해 있고 한인 비즈니스도 다양해 영어 한 마디 안 하고도 불편이 없다.

그럼에도 아직은 습관적으로 LA와 비교를 한다. LA엔 뭐가 있는데, LA에는 이게 좋은데, LA에는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LA 살고 있을 때는 안 그랬다. 낡

고 지저분한 건물, 짝짝 막히는 도로, 어딜 가나 부딪치는 홈리스, 시도 때도 없는 산불, 탁한 공기에 오히려 불만만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 떠올리는 LA는 그런 곳이 아니다. 오히려 탁 트인 태평양 바다, 수천피트 가파른 등산로, 할리우드 보울과 다저스 구장, 월셔길 팜트리, 보랏빛 자카란다 같은 것들이 늘 눈에 밝힌다. 순두부, 돼지국밥, 칼국수, 순댓국 같은 한인타운 맛집도 머리에 맴돈다.

사람 마음이 그런가 보다. 있을 때는 몰랐다가 떠나고 난 뒤 뒤늦게 그 진가를 알게 되는 것 말이다. 어디에 살든 불편한 일, 유쾌하지 못한 만남, 고생스러운 경험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세월은 그런 것들마저 좋은 기억들로 바꿔놓는다. 그게 시간의

마법이다. 애틀랜타도 그럴 것이다. 타향도 정 들면 고향이라는 말처럼 언젠가 이곳을 떠난다면 애틀랜타 역시 고향 그리듯 그리워할 것이다.

지인들이 가끔 LA에서, 혹은 타주에서 안부를 물어온다. “애틀랜타 어때요?” 그럴 땐 자신있게 대답한다. “참 좋아요. 공기 좋고, 나무 많고, 사람들이 여유롭고. 무엇보다 한국사람 살기에 딱입니다. 애틀랜타로 이사 오세요.”

미국 살이 20년이 넘었다. 2001년 첫발을 디딘 곳은 뉴욕이었다. 이후 롱아일랜드에서 5년 반을 살았다.

힘겨운 타향살이 말 그대로 떠나온 한국이 늘 그리웠다. 허구한 날 밀리는 길, 복잡하고 정신없는 사회, 치열한 경쟁, 시위 데모 그칠 날 없는 어지러운 사회에 진저리치곤 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생각나는 건 그런 게 아니었다. 눈부신 봄꽃, 낭만의 여름 바다, 단풍 든 고궁 그리고 동동 발 구르며 오르던 고국의 겨울 산이었다. 활기찬 거리, 즐겨 다니던 맛집 생각도 간절했다.

2006년 직장을 옮기면서 LA로 이사했다. 15년을 살았다. 그새 아이도 컸고 우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피트 시거(1919~2014)는 한국의 진보 좌익 사이에서도 ‘레전드’로 통한다. 1970~80년대 민주화 시위현장에서 ‘우리 승리하리라(We Shall Overcome)’는 ‘애국가’ 처럼 불리지 않았던가.

반전 운동가이자 저항적 포크의 거장으로 기성체제에 대한 저항심을 일깨워줬다는 시거. 한국전 즈음 ‘매카시 광풍’이 불 때는 공산주의자로 찍혀 방송출연금지를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특히 몇해 전 투기금융자본을 비판하는 뉴욕의 ‘월스트리트 점령’ 집회에 지팡이를 짚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죽음의 병상에서도 불의와 타협 않는 끈끈함을 보여줘 후대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우리에게 또 하나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 외국가수로는 처음으로 아리랑을 소개한 인연이 있어서다. 그것도 1950년, 세상이 코리아의 존재를 모르고 있을 때다.

노랫말의 후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다. “내 고향 삼천리 금수

강산에/ 언젠가는 평화와 풍요가 꽃피우리.” 400여 년 전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대역죄인이 처형장으로 끌려가며 불렀던 노래라는 설명을 달았다.

죄를 지었을망정 자신이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조선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그래서 이성을 떠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시거는 아리랑이 일제강점과 분단의 아픔이 서린 포크송이라며 직접 영어로 번역해 불렀다.

미국가수가 불렀는데도 애잔하게 들리는 건 왜일까. 아마 ‘한’을 가슴 한켠에 담아내 그렇지 않나 싶다.

시거가 남긴 많은 작품 가운데 불후의 명곡으로 꼽히는 노래가 있다. ‘턴 턴 턴(Turn! Turn! Turn!)’이다.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고, 또 변합니다/ 계

절이 바뀌듯이 변하고, 변하고, 또 변합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은 변하지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둬들일 때가 있지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면 금세 성경 구절을 떠올릴 것 같다. 구약의 전도서 아닌가. ‘헛되고 헛되다’로 시작하는

전도서는 지혜문학의 백미로 꼽힌다. 셰익스피어는 물론 링컨과 같은 위인들도 종종 인용해 비교적 친숙하게 느껴진다.

저자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는 그가 살아보니 세상만사 헛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게 줄거리다.

이어지는 가사는 이렇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으면 평화를 누릴 때도 있지요.” 여기까지는 전도서 구절을 그대로

베꼈다. 시거는 그런다음 이런 말을 덧붙였다. “평화는 언제라도 늦지 않지요.”

그는 작곡은 본인이 했지만 가사는 바이블이 출처라고 솔직히 털어놨다. 자기가 손을 댄 건 ‘턴 턴 턴’과 마지막 평화와 관련된 구절 뿐이라는 것. 노래가 평화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걸 알 수 있겠다. 아리랑을 노래한 가수답게 오늘의 한반도 사태의 해결책을 이미 반세기 전에 제시했다고 해야 할지.

전도서엔 솔로몬이 또 다시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일을 살펴 봤다는 내용이 나온다. “말이 빠르다고 달음박질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힘에 세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며/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슬기롭다고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누구든 때가 되어 불행이 덮쳐오면 당하고 만다는 것. 달리기 선수라고, 힘이 장사라고, 돈이 많다고, 또 명문대학을 나왔다고 오만을 떨지 말고 하찮은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하며 살라는 뜻이 아닐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일진대 고맙고, 고맙고, 또 고맙고. 2021년 끝자락에서 느끼는 소회다.

편집고문

‘턴! 턴! 턴!’의 감사





1960년대 동숭동 서울대학 캠퍼스 전경. 당시 서울대생들은 삶은 어려웠지만 개천은 '세느강'으로, 다리는 '미라보'라 부르며 낭만 섞인 학창생활을 보냈다. 왼쪽 언덕에 다닥다닥 붙여 지은 낙산 '빈민' 아파트가 보인다.

1968년 서울, 맨땅에 헤딩하기



김병권
(문리대 63, 뉴저지)

벌써 5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대 후 물들인 군복을 걸치고 지낸 께죄죄한 대학시절입니다. 하루는 강의를 마치고 '세느' 강이라고 불리던 개천에서 종로 5가 쪽으로 걸어가고 있으려니 이마가 벗겨진 50대의 사내가 걸음을 멈추더니, "아! 선생님 여기서 다시 뵙는군요" 하는 것이 아닌가요.

나는 손사래를 치면서 사람을 잘못본 것이 아닌지 하고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으나 전혀 기억에 남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저 혹시 사람을 잘못본 것이 아닌가요?"

"일년 전 그 때 뚝섬에서 정복자라는 영화에..." 아,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시 몇마디 하더니 바쁜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얼빠져있는 나를 측은히 여겼음인지 고개를 숙인 후 떠났습니다. 나는 그 사내의 뒷통수를 바라보면서 부박한 우리의 인연에 대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학교생활도 그렇지만 끼니걱정, 잠자리 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공부는 뒷전이고 서울생활은 생명 연습장이 되어 동가숙서가식 하던 해였습니다.

거처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 이 궁리

저 궁리하다가 어느 지인의 정보로 근로자합숙소에 겨우 일주일 허가를 받아 들어갔습니다. 이 근로자 합숙소는 서울시청이 거쳐가 없는 영세 근로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그 당시 네 군데 있었습니다. 성동, 동대문, 남대문 그리고 영등포 합숙소였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날뽀팔이로 거리에서 도부치는 사람, 잡역부, 소매치기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외롭고 각박한 상황에서도 종종 동류의식이 있어 좋은 귀뜸을 주었습니다.

“영화사에 가서 항의하고 농성하자. 우리는 엑스트라지만 인간이다. ~ 케라를 받지 못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어느날 월부 책장수하던 이가 나에게 솔직한 얘기를 했습니다. 총무로에 새벽같이 가라. 거기에 가면 드럼통에 나무를 때며 기다리는 패거리가 있을 게다. 거기서 불을 쪼이며 기다려라. 그러면 사람이 필요한 곳에서 사람을 찾으러 올 게다. 노동에 따라 일당 150원 내지 200원을 벌 수 있을 게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판자조각을 태우며 새벽 추위를 달래는 무리가 있어 끼어들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전후의 주름살이 깊게 패인 사내들이었습니다.

얼마후 드디어 어떤 잠바가 나타나서 사람이 100여 명 필요하며 일당 180원이며 하루 종일 노역이라며 뚝섬 공지에 9시까지 집합하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는 〇〇 영화사 인력부장이며 '케라'는 끝까지 남아 일해야 준다고 못박았습니다. 우리는 아름아름으로 버스 노선을 알아 뚝섬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대강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금빛 전투모를 쓰고 비까번쩍하는 긴 칼을 든 신영균이 죽고 나자빠진 우리들(엑스트라) 밟고 지나가면 우리들은 가볍게 꿈틀거리고만 있어야 하는 운명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사극의 한 장면을 위해 적어도 일주일 정도 죽었다 또 깨어나고 또 다음 날은 고추장을 얼굴에 바르고 목에 된장을 발라 다시 죽어야 하는 신세지만 일주일 임금을 상상하

면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1시 가까이 되자, 영화사 측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가 우리에게 오더니, 오늘 촬영은 취소되었다는 전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우리는 속을 부글부글 끓이면서 한동안 감론을박하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더러는 세상만사가 이렇다하며 떠나버렸고 나는 단체행동을 해야 우리의 '케라'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등글게 모아서 영화사에 비분강개하는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자무식하지만 사람의 신의와 약속을 자기 맘대로 이랬다저랬다 하는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단결하여 영화사에 가서 항의하고 농성하자,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다. 우리는 엑스트라지만 또한 인간이다.

〇〇영화라는 간판의 사무실 문을 들

어서자마자, 어랴? 하고 나는 놀랐습니다. 말이 영화사지 이건 거대한 창고로 입구 쪽에만 책상 몇 개와 의자가 전부였습니다. 예쁜 여배우 대신 우락부락한 청년들이 서성거렸고 나는 잠바를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따졌습니다. 저 아래 군중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촬영취소 통보를 받고 케라를 받으려 뚝섬에서 예까지 걸어서 왔습니다. 우리의 일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분노로 폭발할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결심한 듯이 여러 군데 전화를 걸더니, 좋다 그러면 1인당 90원으로 지불하겠으며 그 이상은 안된다. 그래서 나는 판정승도 아니고 판정패도 아닌 중간에서 원기를 잃고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결과를 설명하고 공정하게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며 아무도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대학로에서 만난 이는 그들중의 한명일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도 나도 엑스트라가 아닌 주인공으로 살아나가자고 기도했습니다. 그후 나는 지인의 소개로 입주 과외선생으로 천거되어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여전히 역마살이 끼었음인지 다시 거리에 나왔게 됩니다. 이 시기는 군사정권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끊임 없는 데모로 대학문을 닫거나 앞당겨 방학이 되어 가능했던 것입니다.

원하진 않았지만 별수없이 노랑진, 상도동, 흑석동에서 리야카 혹은 지게로 가위를 치는 고물장수가 됩니다. 3년 전 40여 년만 한국에 처음나가 장승백이에 하염없이 앉아 옛기억을 더듬은 것도 바로 그 각인이 너무나 컸던 때문일 겁니다.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3백만불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제 15대/제 16대 인수인계 후
정확한 금액을 발표하겠습니다.

종신이사 (\$3,000이상)

다이아몬드이사

워싱턴주 -故고광선(공대57)

플라티늄이사

조지아 - 주종광(약대60)

조지아 - 허지영(문리66)

골드이사

남가주 - 김일영(의대65)

남가주 - 박창규(약대59)

남가주 - 성낙호(치대63)

남가주 - 한홍택(공대60)

네바다 - 정상진(상대 55)

뉴잉글랜드 - 박영철(농대64)

뉴잉글랜드 - 윤상래(수의62)

뉴잉글랜드 - 정선주(간호68)

뉴잉글랜드 - 최홍균(공대69)

북가주 - 김정희(음대56)

시카고 - 이용락(공대48)

커네티컷 - 오인석(법대58)

워싱턴주 - 양남주(명예이사)

실버이사

남가주 - 김경숙(사대64)

남가주 - 김태형(의대57)

남가주 - 이홍표(의대58)

남가주 - 정재훈(공대64)

남가주 - 한귀희(미대68)

루지애나 - 강영빈(문리58)

워싱턴주 - 김재훈(공대72)

남가주

故서영석(의대55)

故오재인(치대33)

故윤낙승(의60)

강신용(사대73)

곽웅길(문리59)

권기홍(의대60)

김경숙(간호68)

김기형(상대75)

김동훈(의대71)

김보연(간호63)

김상찬(문리65)

김성호(법대64)

김재영(농대62)

나두섭(의대66)

노명호(공대61)

노재성(법대58)

류재풍(법대60)

박명근(상대63)

박원준(공대53)

박윤수(문리48)

박종수(수의58)

방명진(공대73)

서동영(사대60)

서치원(공대69)

심상은(상대54)

심화섭(약대61)

오홍조(치대56)

이병준(상대55)

이세열(사대57)

이승훈(상대74)

이종도(공대66)

이청광(상대61)

임낙균(약대64)

임용오(의대57)

전희택(의대58)

정동구(공대57)

정임현(간호72)

정철룡(의대55)

정태(의대57)

제영혜(가정71)

조용원(문리66)

조한원(의대57)

차민영(의대76)

차종환(사대54)

하기환(공대66)

한효동(공대58)

홍병각(문리55)

홍성선(약대72)

뉴욕

강충무(사대61)

고애자(음대57)

故한창섭(문리57)

김광호(문리62)

김승호(공대71)

김종률(사대51)

김한중(의대56)

김해암(의대52)

석창호(의대66)

신응남(농대70)

윤종숙(약대66)

이기영(농대70)

이대영(문리64)

이재덕(법대60)

이재량(상대61)

이전구(농대60)

이준행(공대47)

최수용(상대55)

최영태(문리67)

추재옥(의대57)

한태진(의대58)

허선행(의대58)

뉴잉글랜드

고일석(보건69)

고종성(사대75)

김문소(수의61)

김용구(공대66)

박경민(의대53)

오세경(약대61)

윤선홍(치대64)

이의인(공대68)

전신의(문리57)

정정욱(의대60)

정태영(문리71)

홍지복(간호70)

미시간

정태(의대 57)

미네소타

김권식(공대61)

김태환(의대58)

남세현(공대67)

변우진(인문81)

조형준(문리62)

황호숙(사대65)

북가주

민병곤(공대65)

손석보(공대68)

윤정욱(약대50)

전혜경(문리67)

샌디에고

임천빈(문리61)

시카고

남상용(공대52)

심상구(상대63)

이재희(치대67)

장윤일(공대60)

최의필(의대53)

한재은(의대59)

아이오와

김시근(공대72)

오레곤

김상순(상대 67)

오하이오

김용현(경원66)

워싱턴DC

공순옥(간호66)

박평일(농대69)

이윤주(상대 63)

최지원(의대61)

강연식(사대57)

권기현(사대53)

민홍기(문리61)

방은호(약대43)

이내원(사대58)

오인환(문리63)

워싱턴주

이명자(간호74)

이희백(의대55)

조지아

김용건(문리48)

코네티컷

유시영(문리68)

플로리다

김중권(의대63)

텍사스

박태우(공대64)

이광연(공대60)

조시호(문리59)

필라델피아

고병은(문리55)

김영우(공대55)

김현영(수의58)

서중민(공대64)

손재옥(가정77)

신성식(공대56)

신의석(공대53)

이만택(의대52)

주기목(수의68)

하틀랜드

김경숙(가정70)

김명자(문리62)

김시근(공대72)

배규영(사대68)

오명순(가정69)

이교락(의대53)

이상강(의대70)

종신이사 구분

(D)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P) 플라티늄 이사

\$50,000 이상

(G) 골드이사

\$10,000 이상

(S) 실버이사

\$5,000 이상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회기:2021.7.1 ~ 2022.6.30, 제2차회기:2022.7.1 ~ 2023.6.30) 볼드는 2차회기

남가주

- 강경수(법58)
- 강동순(법59)
- 강윤희(간46)
- 강중경(공48)
- 강춘자(간69)
- 강호석(상81)
- 강홍제(상53)
- 강희창(공57)
- 고석규(치65)
- 구철희(의78)
- 권기상(대72)
- 김강수(문59)
- 김건진(문62)
- 김경수(치58)
- 김경숙(간68)
- 김광은(음56)
- 김교복(농63)
- 김난영(공53)
- 김동산(법59)
- 김동석(음64)
- 김문엽(농83)
- 김병완(공58)
- 김상찬(문65)
- 김생철(법54)
- 김석구(공66)
- 김석홍(법59)
- 김성호(법64)
- 김성환(의65)
- 김수영(사57)
- 김수향(간68)
- 김순자(치57)
- 김영덕(법58)
- 김영도(공67)
- 김영봉(사60)
- 김영중(치66)
- 김영희(간54)
- 김원탁(공65)
- 김원호(약63)
- 김은숙(미62)
- 김일영(의65)
- 김지경(사60)
- 김자성(의79)
- 김재영(농62)
- 김재희(문54)
- 김준일(공62)
- 김진식(공66)
- 김태윤(법53)
- 김택수(의57)
- 김학철(의55)
- 김현순(간69)
- 김화섭(의55)
- 김희창(공64)
- 나두섭(의66)
- 나민주(음65)
- 나승욱(문59)
- 노명호(공61)
- 류정순(가69)
- 문병길(문61)
- 문인일(공51)
- 박명근(상63)
- 박민식(수65)
- 박부강(사64)
- 박영욱(사55)
- 박우선(공57)
- 박원준(공53)
- 박은숙(미62)
- 박인수(농64)
- 박인창(농65)
- 박입하(치56)
- 박제환(문75)
- 박중수(수58)
- 박찬호(농63)
- 박창규(약59)
- 박취서(약60)
- 박호성(의55)
- 방명진(공73)
- 배동완(공65)
- 배병욱(음58)
- 배윤숙(미65)
- 배효식(문52)
- 서동영(사60)
- 서명희(농67)
- 서치원(공69)
- 성낙호(치63)

- 성주경(상68)
- 손기용(의55)
- 신건호(법53)
- 신동국(수76)
- 신복례(문83)
- 신영찬(의63)
- 심상은(상54)
- 안병일(의63)
- 안승호(공71)
- 양승문(공65)
- 양운택(의58)
- 양태준(상56)
- 염동해(농74)
- 오선웅(의63)
- 오찬수(약57)
- 유석홍(상61)
- 유영자(음63)
- 유이중(농74)
- 윤태식(의61)
- 윤경민(법55)
- 윤석철(상60)
- 윤희성(치65)
- 이강훈(치65)
- 이건섭(치54)
- 이경희(가69)
- 이명선(상58)
- 이법모(치74)
- 이법식(공61)
- 이성자(간76)
- 이소희(의61)
- 이안순(간77)
- 이영수(상60)
- 이영신(간77)
- 이영일(문53)
- 이영현(간70)
- 이용한(공64)
- 이원택(의65)
- 이익삼(사58)
- 이장길(치63)
- 이재룡(공71)
- 이정근(사60)
- 이정화(공52)
- 이조숙
- 이종모(간69)
- 이준호(상65)
- 이진영(의65)
- 이창무(공54)
- 이창신(법57)
- 이채진(문55)
- 이탁성(공56)
- 이해영(공56)
- 이호(음92)
- 이호진(간74)
- 이흥표(의58)
- 이휘영(법59)
- 이희충(공68)
- 임동규(미57)
- 임동호(약55)
- 임문빈(상58)
- 임춘수(의57)
- 장근숙(간73)
- 장동석(문66)
- 장원경(미73)
- 장인숙(간70)
- 장정용(미64)
- 전경배(의75)
- 전낙관(사60)
- 전상욱(사52)
- 전원일(의77)
- 전원희(의65)
- 정병희(농70)
- 정수만(의66)
- 정신(대92)
- 정연웅(상63)
- 정예현(상63)
- 정인환(법54)
- 정철룡(의55)
- 정형민(문71)
- 정환(공64)
- 조동준(의57)
- 조만연(상58)
- 조상호(농51)
- 주영세(사59)
- 진석호(공04)
- 최영구(상61)

- 최영근(사57)
 - 최영순(간69)
 - 최용원(공57)
 - 최종권(문59)
 - 추교훈(농63)
 - 한동수(의60)
 - 한중철(치62)
 - 한홍택(공60)
 - 한효동(공58)
 - 홍병각(문55)
 - 홍선례(음70)
 - 홍선일(공71)
- 뉴욕**
- 강영선(공50)
 - 강창홍(의63)
 - 곽노섭(문49)
 - 곽선섭(공61)
 - 권문웅(미61)
 - 권영국(상60)
 - 권영대(공69)
 - 권정덕(의58)
 - 김광호(의66)
 - 김규화(상63)
 - 김영숙(미57)
 - 김명철(공60)
 - 김병권(문63)
 - 김석식(의58)
 - 김석자(음61)
 - 김영길(문62)
 - 김영무(공75)
 - 김영수(법66)
 - 김영철(의55)
 - 김완주(의54)
 - 김우연(문63)
 - 김욱현(의59)
 - 김윤수(상50)
 - 김정희(간69)
 - 김종원(사58)
 - 김종현(법57)
 - 김중권(의63)
 - 김진자(간60)
 - 김태일(공68)
 - 김태호(상57)
 - 김해양(의52)
 - 김현중(공63)
 - 김희국(약54)
 - 리준무(음65)
 - 문석면(의52)
 - 문소자(음60)
 - 박건이(음62)
 - 박경희(음57)
 - 박상(상55)
 - 박상원(음69)
 - 박승영(법56)
 - 박은규(약72)
 - 배상규(약61)
 - 배정희(사54)
 - 선중철(의57)
 - 손갑수(약59)
 - 손규성(사61)
 - 송기인(의60)
 - 신두식(의58)
 - 신정자(간62)
 - 양거영(의48)
 - 양명자(사63)
 - 엄중열(미81)
 - 오용호(의66)
 - 이상영(상55)
 - 원인순(문67)
 - 유재룡(공58)
 - 유재섭(공65)
 - 유택상(문58)
 - 육순재(의63)
 - 윤영섭(의57)
 - 윤인숙(간63)
 - 윤중숙(약66)
 - 윤철(문54)
 - 유현남(공64)
 - 이강욱(공70)
 - 이강홍(상60)
 - 이명준(공72)
 - 이문봉(미76)
 - 이상근(상84)
 - 이상무(의56)

- 이상원(농62)
 - 이상구(약56)
 - 이상일(대66)
 - 이영일(의60)
 - 이영재(상58)
 - 이영대(약63)
 - 이유성(사57)
 - 이재진(의59)
 - 이진구(농60)
 - 이정은(의58)
 - 이종석(상57)
 - 이종환(법51)
 - 이창호(의63)
 - 이태안(의61)
 - 전병삼(약54)
 - 정동성(상58)
 - 조규웅(의59)
 - 조남천(사59)
 - 조대영(공61)
 - 조중수(공64)
 - 조태환(상56)
 - 주이돈(의58)
 - 진봉일(공50)
 - 차국만(상56)
 - 최영대(문67)
 - 최정웅(사63)
 - 최한웅(농58)
 - 최형무(법69)
 - 최병웅(문71)
 - 한승순(간70)
 - 한영수(의61)
 - 한태진(의58)
 - 허병렬(사40)
 - 허선형(의58)
 - 허영자(약63)
 - 허정렬(사63)
 - 현영수(음61)
 - 홍선경(의58)
 - 홍정표(음67)
- 뉴잉글랜드**
- 김만옥(약56)
 - 김문수(수61)
 - 김선혁(약59)
 - 김정선(문66)
 - 김형범(문57)
 - 박종건(의56)
 - 박승중(의56)
 - 송미자(농62)
 - 윤상래(수62)
 - 윤영자(미60)
 - 이규진(약60)
 - 이기용(공57)
 - 이영인(사74)
 - 이외인(공68)
 - 장용복(공58)
 - 정정욱(의60)
- 라스베가스**
- 김영중(치66)
- 텍사스**
- 위장호(의67)
 - 표한승(치58)
- 미네소타**
- 남세현(공67)
 - 변우진(문81)
 - 성욱진(치87)
 - 이창제(문61)
 - 주한수(수62)
 - 차재호(농84)
- 미시간**
- 강신조(공62)
 - 김재석(의61)
 - 김정화(음56)
 - 김희주(의62)
 - 박천자(사64)
 - 오동환(의65)
 - 이민우(의61)
 - 이상길(의65)
 - 하계현(공64)

- 박가주
 - 강재호(상57)
 - 강정수(문61)
 - 권오형(사61)
 - 김명환(문67)
 - 김은용(공62)
 - 김희경(음73)
 - 남광순(음64)
 - 민병덕(상69)
 - 박경웅(약63)
 - 박서규(법54)
 - 박성수(공59)
 - 박영욱(사55)
 - 박정규(간76)
 - 손창승(공69)
 - 신규명(공64)
 - 심영춘(수64)
 - 오명주(간77)
 - 윤성희(사58)
 - 이민영(문57)
 - 이정남(공63)
 - 임승쾌(문66)
 - 임정란(음76)
 - 전병련(공54)
 - 정규남(공52)
 - 정유석(의58)
 - 정춘임(간67)
 - 조태목(사60)
 - 천동우(공63)
 - 최경선(농65)
 - 탁은숙(문54)
 - 홍병익(공68)
 - 황동하(약65)
- 샌디에고**
- 김영애(사56)
 - 오계환(공64)
 - 이문상(공62)
 - 이휘영(법59)
- 시카고**
- 고병철(법55)
 - 김갑중(의57)
 - 김병윤(문65)
 - 김성일(공68)
 - 김승주(간69)
 - 김윤하(공66)
 - 김인섭(음68)
 - 김정수(문69)
 - 김정주(문60)
 - 김정화(음56)
 - 김현주(문61)
 - 남성희(의56)
 - 민영기(공65)
 - 박명기(농61)
 - 박정일(의61)
 - 박창욱(공56)
 - 서상현(의65)
 - 소진문(치58)
 - 신석균(문54)
 - 안은식(문55)
 - 유기정(간72)
 - 윤경순(사61)
 - 윤덕상(치62)
 - 이건정(공69)
 - 이덕수(문58)
 - 이봉수(간69)
 - 이상길(의65)
 - 이상자(사60)
 - 이시영(상46)
 - 이영섭(수56)
 - 이영섭(수56)
 - 이용락(공48)
 - 임복경(문56)
 - 임영신(의52)
 - 임현재(의59)
 - 장윤일(공60)
 - 정승규(공60)
 - 조대현(공57)
 - 진보린(약56)
 - 최희수(문67)
 - 한의일(공62)
 - 함성택(문55)
 - 홍청일(약57)
 - 황치룡(문65)

- 오레곤
 - 계지영(문60)
 - 김상순(상67)
 - 박희진(농78)
 - 최용성(의55)
 - 한국남(공57)
 - 한영준(사60)
- 오하이오**
- 김동광(공62)
 - 김태웅(의61)
 - 김현양(공64)
 - 서의원(공66)
 - 송용재(의63)
 - 이수자(공62)
 - 이영웅(의56)
- 워싱턴DC**
- 김길중(약69)
 - 고무환(법57)
 - 곽명수(문65)
 - 권철수(의68)
 - 김내도(공62)
 - 김동훈(법56)
 - 김윤덕(의53)
 - 김윤호(공64)
 - 김종호(약68)
 - 김한중(공56)
 - 김현정(미94)
 - 박영태(상63)
 - 박용걸(약56)
 - 박인영(의69)
 - 박홍우(문61)
 - 박순(법58)
 - 서윤석(의62)
 - 서취영(의55)
 - 석균범(문61)
 - 송병준(약68)
 - 신상균(의52)
 - 오광동(공52)
 - 오인환(문63)
 - 우관혜(음63)
 - 우재형(상54)
 - 유영준(의70)
 - 유정식(수60)
 - 유홍열(문74)
 - 이건형(수54)
 - 이내원(사58)
 - 이명덕(사61)
 - 이선구(문65)
 - 이영덕(사61)
 - 이윤주(상63)
 - 이재승(의55)
 - 이중국(의52)
 - 이준영(치74)
 - 이호균(법60)
 - 장윤희(사54)
 - 전희순(간76)
 - 정계훈(문55)
 - 정원자(농62)
 - 정평희(공71)
 - 조세진(의65)
 - 조영희(문66)
 - 조화영(문61)
 - 천권희
 - 최경수(문54)
 - 최재귀(미63)
 - 홍인석(수60)
 - 한영성(공58)
- 워싱턴주**
- 김교선(법54)
 - 김성열(치61)

- 김재훈(공72)
 - 김형록(간63)
 - 류성열(공72)
 - 박진수(의56)
 - 변중혜(법58)
 - 신재무(사77)
 - 안승적(농59)
 - 양용관(수62)
 - 윤석진(문64)
 - 윤태근(상69)
 - 이길송(상57)
 - 이순모(공56)
 - 이양춘(공52)
 - 이원섭(농77)
 - 이희백(의55)
 - 장대홍(공65)
 - 장현길(공60)
 - 전병택(상65)
 - 정영자(사56)
 - 최준한(농58)
- 유타**
- 김용재(의60)
 - 김인기(문58)
- 조지아**
- 김기춘(공61)
 - 김명숙(농58)
 - 김용건(농48)
 - 김중구(수73)
 - 김태형(의57)
 - 김학래(공60)
 - 김현희(간59)
 - 백성식(약57)
 - 서광도(공65)
 - 손종수(의50)
 - 송용덕(의57)
 - 양정자(간61)
 - 오경호(수60)
 - 유성우(상66)
 - 임수암(공60)
 - 정선휘(공65)
 - 최종신(의63)
- 캐나다 밴쿠버
캘러리아나**
- 김기현(문52)
 - 마동일(의57)
 - 이범세(의63)
 - 이중영(음58)
 - 정신호(자78)
- 커네티컷**
- 김기훈(상56)
 - 라찬국(의57)
 - 유철정(약61)
 - 최창승(의52)
 - 홍성취(공56)
- 테네시**
- 김경덕(공75)
 - 서갑식(공70)
 - 임효순(간71)
- 텍사스**
- 박석규(간59)
 - 박유미(약62)
 - 박진성(의67)
 - 박태우(공64)
 - 송요한(문73)
 - 유한창(공69)
 - 유환(농56)
 - 이경화(공56)
 - 이석호(농78)
 - 조진태(문57)

- 진기주(상60)
 - 최관일(공54)
 - 최성호(문58)
 - 최용천(의53)
 - 최취기(공71)
 - 황명규(공61)
- 플로리다**
- 김동환(문53)
 - 김성준(의55)
 - 김재석(의66)
 - 박창익(농64)
 - 안창현(의55)
 - 이재덕(법60)
 - 이정필(의58)
 - 임필순(의54)
 - 전영자(미58)
 - 최준희(의58)
 - 한성수(의54)
 - 황현상(의55)
- 필라델피아**
- 강준철(사59)
 - 고영자(치63)
 - 길정숙(사53)
 - 김경숙(문59)
 - 김경희(가71)
 - 김국간(치64)
 - 김상천(농64)
 - 김재술(약58)
 - 김정현(공68)
 - 김주진(법54)
 - 김진우(공62)
 - 문대욱(의67)
 - 박호현(의52)
 - 배성호(의65)
 - 서중민(공64)
 - 성기호(상59)
 - 송성균(공50)
 - 송성익(문59)
 - 신선자(사60)
 - 심완섭(의69)
 - 안세현(의62)
 - 윤정나(음57)
 - 이규호(공56)
 - 이만택(의52)
 - 이성숙(가74)
 - 이승공(의63)
 - 이지춘(미57)
 - 전무식(수61)
 - 전방남(상73)
 - 전희근(의54)
 - 정덕준(상63)
 - 정응남(문60)
 - 정태광(공74)
 - 정홍택(상61)
 - 조영호(음54)
 - 조정현(수58)
 - 주기목(수68)
 - 차호순(문62)
 - 최현태(문62)
 - 한동휘(문57)
- 하와이**
- 김달욱(사55)
 - 이재형(수61)
 - 최경윤(사57)
 - 하인환(공56)
- 하트랜드**
- 김용환(공71)
 - 박태우(공64)
 - 정민재(농70)

알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일 말일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uusa30@gmail.com

일반후원금, 광고후원금

일반후원금

| | |
|------------|---------|
| 남가주 | |
| 강신용(사73) | 200 |
| 구철희(의78) | 125 |
| 권기상(대72) | 100 |
| 김동석(음64) | 200 |
| 김영(수63) | 500 |
| 김영봉(사60) | 200 |
| 김영희(간54) | 50 |
| 김은숙(미62) | 1,000 |
| 김은종(상59) | 400 |
| 김종섭(문66) | 100,000 |
| 노명호(공61) | 2,000 |
| 박우선(공57) | 500 |
| 박원준(공53) | 200 |
| 박은숙(미62) | 200 |
| 박종수(수58) | 12,000 |
| 박혜란(음72) | 300 |
| 방석훈(농55) | 300 |
| 성주경(상68) | 200 |
| 송영두(공59) | 200 |
| 신영찬(의63) | 200 |
| 안혜정(생77) | 200 |
| 오찬수(약57) | 200 |
| 오흥조(치56) | 500 |
| 이명선(상58) | 500 |
| 이법식(공61) | 375 |
| 이장길(치63) | 50 |
| 이창신(법57) | 500 |
| 장동석(문66) | 200 |
| 정균희(의65) | 10,000 |
| 정신(대92) | 1,000 |
| 정재훈(공64) | 260 |
| 최용완(공57) | 100 |
| 최종권(문59) | 220 |
| 한귀희(미68) | 2,000 |
| 한흥택(공60) | 200 |

| | |
|----------------|-------|
| 뉴욕 | |
| 강창홍(의63) | 50 |
| 권영국(상60) | 200 |
| 금영천(약72) | 1,000 |
| 김명철(공60) | 200 |
| 김은희(간78) | 200 |
| 김중권(의63) | 200 |
| 리준무(음65) | 200 |
| 선종철(의57) | 100 |
| 이강홍(상60) | 200 |
| 이전구(농60) | 500 |
| 조남천(사59) | 350 |
| 최한용(농58) | 1,500 |
| 한승순(간70) | 150 |
| 허선희(의58) | 200 |
| 미시간 | |
| 오동환(의65) | 200 |
| 이성길(의65) | 100 |
| 시카고 | |
| 김현주(문61) | 100 |
| 소진문(치58) | 200 |
| 이용락(공48) | 1,000 |
| 최희수(문67) | 100 |
| 오레곤 | |
| 김상순(상67) | 200 |
| 워싱턴DC | |
| 강길중(약69) | 200 |
| 고무환(법57) | 200 |
| 권철수(의68) | 200 |
| 김동훈(법56) | 200 |
| 박홍우(문61) | 200 |
| 백순(법58) | 200 |
| 석균범(문61) | 200 |
| 오인환(문63) | 200 |
| 이건형(수54) | 25 |
| 정평희(공71) | 200 |
| 캐나다 밴쿠버 | |
| 장희순(의73) | 388 |
| 커네티컷 | |
| 김기훈(상56) | 200 |
| 최창송(의52) | 200 |

| | |
|--------------|-------|
| 텍사스 | |
| 이석호(농78) | 200 |
| 진기주(상60) | 500 |
| 황명규(공61) | 200 |
| 플로리다 | |
| 임필순(의54) | 200 |
| 필라델피아 | |
| 이만택(의52) | 200 |
| 이중공(의63) | 200 |
| 정태광(공74) | 100 |
| 하트랜드 | |
| 고차봉희(의51) | 500 |
| 광고후원금 | |
| 남가주 | |
| 강호석(상81) | 240 |
| 고석자(인72) | 600 |
| 김양희(음77) | 1,200 |
| 김원탁(공65) | 240 |
| 김은종(상59) | 600 |
| 김자성(의79) | 1,500 |
| 김정빈(공66) | 500 |
| 나두섭(의66) | 200 |
| 미주재단(0) | 2,000 |
| 민일기(약69) | 500 |
| 박수경(생84) | 1,200 |
| 박재환(문75) | 600 |
| 박찬호(공58) | 300 |
| 서동영(사60) | 240 |
| 서치원(공69) | 1,000 |
| 안혜정(생77) | 200 |
| 이기준(법54) | 500 |
| 이범모(치74) | 250 |
| 이원택(의65) | 1,200 |
| 이종묘(간69) | 240 |
| 임춘택(상68) | 400 |
| 정재훈(공64) | 240 |
| 제11대동창회(0) | 1,000 |
| 차민영(의76) | 1,500 |
| 최용준(수81) | 400 |
| 한효동(공58) | 300 |
| 홍훈정(음70) | 400 |

| | |
|----------------------|------|
| 뉴욕 | |
| 김승호(공71) | 1500 |
| 이전구(농60) | 240 |
| 장학기금 | |
| 남가주 | |
| 박원준(공53) | 300 |
| 시카고 | |
| 이용락(공48) | 300 |
| 모교발전기금 | |
| 남가주 | |
| 박우선(공57) | 300 |
| 박원준(공53) | 700 |
| 이범모(치74) | 200 |
| 홍선일(공71) | 100 |
| 워싱턴DC | |
| 권철수(의68) | 100 |
| 워싱턴주 | |
| 이원섭(농77) | 150 |
| Brain Network | |
| 시카고 | |
| 이용락(공48) | 200 |
| 평의원회비 | |
| 남가주 | |
| 권기상(대72) | 80 |
| 김건진(문62) | 100 |
| 김기형(상75) | 100 |
| 김동석(음64) | 100 |
| 김병연(공68) | 100 |
| 김병완(공58) | 100 |
| 김상찬(문65) | 100 |
| 김영(수63) | 100 |

| | |
|-----------|-----|
| 김은종(상59) | 100 |
| 김익수(수53) | 100 |
| 김재영(농62) | 100 |
| 김지영(사69) | 100 |
| 남종우(공62) | 100 |
| 노명호(공61) | 100 |
| 라철삼(문64) | 100 |
| 류재풍(법60) | 100 |
| 민일기(약69) | 100 |
| 박상길(농58) | 100 |
| 박재환(문75) | 100 |
| 박종수(수58) | 100 |
| 박혜옥(간69) | 100 |
| 방석훈(농55) | 100 |
| 서치원(공69) | 100 |
| 성주경(상68) | 100 |
| 손영아(음85) | 90 |
| 신건호(법53) | 100 |
| 신영찬(의62) | 100 |
| 신호신(약00) | 100 |
| 오흥조(치56) | 100 |
| 이기준(법54) | 100 |
| 이병준(상55) | 100 |
| 이종도(공66) | 100 |
| 이청광(상61) | 100 |
| 임춘택(상68) | 100 |
| 정동구(공57) | 100 |
| 정상진(상59) | 100 |
| 정재훈(공64) | 100 |
| 제영혜(생71) | 100 |
| 지인수(상59) | 100 |
| 지준근(농56) | 100 |
| 차중환(사54) | 100 |
| 최용준(수81) | 100 |
| 최진석(법64) | 100 |
| 한귀희(미68) | 100 |
| 한종철(치62) | 100 |
| 한흥택(공60) | 100 |
| 한효동(공58) | 100 |
| 뉴욕 | |
| 김용진(수92) | 100 |
| 김창수(의60) | 100 |
| 신응남(농71) | 100 |

| | |
|--------------|------|
| 뉴잉글랜드 | |
| 윤상래(수62) | 100 |
| 미네소타 | |
| 김권식(공61) | 100 |
| 송세진(치78) | 100 |
| 북가주 | |
| 강정수(문61) | 100 |
| 민병곤(공65) | 100 |
| 임승래(문66) | 100 |
| 최경선(농68) | 100 |
| 홍경삼(문61) | 100 |
| 샌디에고 | |
| 김병목(의50) | 100 |
| 임천빈(문61) | 100 |
| 오하이오 | |
| 김용현(경66) | 100 |
| 워싱턴DC | |
| 박상근(법75) | 100 |
| 박평일(농69) | 100 |
| 오인환(문63) | 100 |
| 정평희(공71) | 100 |
| 텍사스 | |
| 이주희(음89) | 100 |
| 필라델피아 | |
| 손재욱(생77) | 100 |
| 이성숙(생74) | 100 |
| 조화연(음64) | 100 |
| 지흥민(수61) | 100 |
| 하트랜드 | |
| 김경숙(간68) | 100 |
| 이상강(의70) | 100 |
| 지부부담금 | |
| 워싱턴DC | 2000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 동창회 후원금 | 동창 회비 | 업소록 광고비 | 특별 후원금 |
|---|---|--|---|
|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 _____ | <input type="checkbox"/> \$75(2021. 7 ~ 2022. 6) <input type="checkbox"/> \$150(2021. 7 ~ 2023. 6) <input type="checkbox"/> \$3,000(중신이사회비) | <input type="checkbox"/> \$240(2021. 7 ~ 2022. 6) <input type="checkbox"/> \$480(2021. 7 ~ 2022. 6) 일반 광고 문의: snuaausa30@gmail.com |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기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 _____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 _____ |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중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비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Payable to SNUAA USA

보낼 곳: SNUAA-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Tel: (213)908-5586 | Email: snuaausa30@gmail.com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 | | | |
|---------|-------|-------------|-------|-----|
| 한글이름: | 영문이름: | 단체명: | 입학연도: | 지부: |
| E-mail: | | Cell Phone: | | |
| 주소: | | | | |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남가주지역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공대66)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 그룹

한태호(인문대 75) www.haanlaw.com

213-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A, CA 90010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사대 81)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 Of Kyung Hee Lee

이경희(인문대 83) imin@iminusa.net

213-385-4646

3435 Wilshire Blvd.,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rit Realty

이종묘(간호대 69) jenniecelee@gmail.com

714-396-0624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정정우(수의대 74)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vello, CA 90640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법대 50)

213-382-6660

3575 Wilshire Blvd., LA, CA 90010

병원

실로암병원

정균희(의대 64)

213-386-8602

2528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동물병원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64)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 76)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Gilbert Drugs

최무식(약대 66)

714-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김경무(공대 69) kyungmookim@yahoo.com

(213) 616-1390

114 Washing Blvd., #C, Marina Del Ray, CA 90292

SHIN-YONG KANG CPA

강신용(사대 73) 공인회계사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Lee Kang Won CPA

이강원(인문대 76)

(213)387-1234

3600 Wilshire Blvd., #930, LA, CA 90010

GSK LLP

강호석(상대 81) cpa@hosukgangcpa.com

(213)380-5060 (LA, CA)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장 준(인문대 85)

(818)77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상대 68) choontaikim@gmail.com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CPA

김원철(농대) kimandhwang@cs.com

213-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www.linkboxusa.com

김원탁(공대 65) linkboxusa@gmail.co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jchung@taycoeng.com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부품

서동영(사대 60)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818-720-2373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뉴욕지역

공인회계사

KI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상대 64)

1430 Broadway St., 3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www.nycgolfcenter.com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petershinesq@gmail.com

718-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I #UI-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윤의규(상대 82) edwarded.yun@edwardjones.com

201-978-7055

560 Sullivan Ave St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201-302-9774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changhsuk@aol.com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의대 72) clee134597@aol.com

718-762-4400

40-5 Br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haeahm@aol.com

212-879-2322

230 East 73Rd Street St., 1A, New York, NY 10021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718-229-1188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박종호 소아과

박종호(의대 79)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richardyoondm@yahoo.com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의대 73)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공대 71)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전미주 서울대 동문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6대 노명호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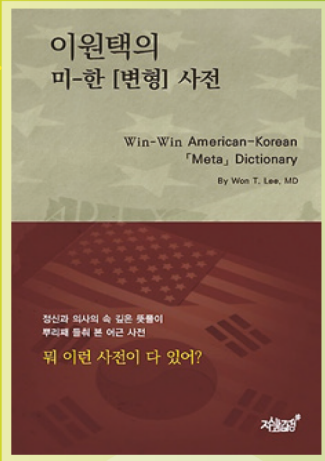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정신과 의사 (의대 '65)

이원택의 미·한 변형 사전

21세기 미국인이 생활 현장에서 쓰는 영어를 (어원 추적) (파생어별 정렬) (소설식 풀이)를 통해 [한글 발음] [한글 해석] [대체 한글] 로 표기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처방} 사전이다.



IT 용어, 신조어·콩글리시 등 부록 22편
총 1236쪽 양장제본, 정가 35불

구매처: LA 반디서점
(213)739-8107, bandibookus.com



www.yongsusanla.com



개성요리 · 궁중요리 전문점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Tel : 213. 388. 3042 Mon thru Sun 11:30am ~ 10pm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since 1999 **듀오** USA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결혼해듀오



LA 213-383-2525
NY 201-947-2525

www.duouusa.net

제16대 미주동창회

회장 노명호(공)

▷고문: 김종섭(문), 박종수(수), 주중광(약)

차기회장 이상강(의)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정호(공), 이관우(공)

명예회장 신응남(농)

역대회장

박종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응남(농)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강호석(상)
▷사무장: 홍선례(음)
▷총무국장: 이호진(간)
▷재무국장: 이윤종(미)
▷IT 국장: 심재호(공)
▷섭외국장: 안혜정(생)
▷문화국장: 홍선례(음)
▷홍보국장: 김자성(의)

회보 발행인 노명호(공)

▷편집 고문: 박용필(문), 김정현(공)
▷편집위원: 김양희(음), 박승현(음), 한정희(미), 허유선(가)

논설위원

▷정태영(문), 문성길(의), 박평일(농), 정홍택(상), 김지영(사), 박제환(문), 강신용(사), 이종호(인), 김학천(치)

회칙위원회

위원장: 김병연(공)
위원: 김용현(상), 김지영(사), 성주경(상), 이민언(법), 조화연(음), 최경선(농), 최진석(법), 한재은(의)

장학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한홍택(공), 황경순(공), 강호석(상), 남종우(공)

포상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경무(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213)908-5586 이메일 news@snuua.org 웹사이트 www.snuua.org

주소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최용준(수의대 81) T: (818)450-7868 yongjunechoi6080@yahoo.com
차기 회장 박제환(문리 75) T: (323)229-3369 jaycpa2000@gmail.com

북가주 SAN FRANCISCO (Jan~Dec)
임준원(공대 77) T: (408)220-4260 joonwlim@gmail.com

샌디에이고 SAN DIEGO (Nov~Oct)
유재호(공대 90) T: (469)387-7922 blue9071@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이명자(간호 74) drmialee@g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문리 77) T: (808)956-2611 nsung@hawaii.edu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강성호(수의 81) T: (214)215-4447 oah9999@yahoo.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장희순(문리 75) T: (778)990-6589 sphro17@gmail.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록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용문(공대 77) ymcgreencorp@gmail.com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회장 차재호(농공학 84) T: (651)769-5343 jaehocha@yahoo.com
차기 회장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오레곤 OR/ID (Jan~Dec)
전병택(상대 65) bryancho@gmail.com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joon@hotmail.com

시카고 IL/IN/WI/MI (Jan~Dec)
김윤하(공대 66) snuaachicago@gmail.com www.snuachicago.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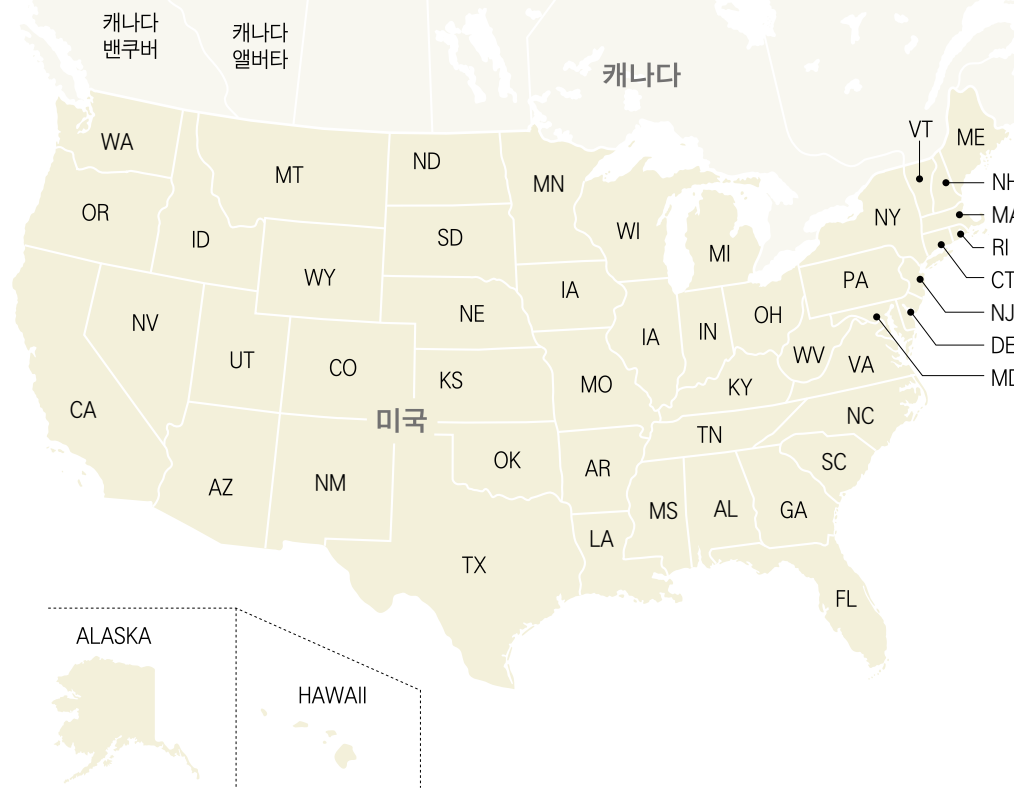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회장 김유경(음대 72) T: (781)223-4411 YkimLC@yahoo.com
차기 회장 임영호(공대 72) 978-490-0118 Ynghlim@yahoo.com

뉴욕 NY/NJ (July~Jun)
회장 김영천(약대 72) yckum52@gmail.com
차기 회장 김정필(공대 71) jaypkim@keiusa.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회장 박상근(법대 75) T: (703)447-8175 sangkuenpark@gmail.com
차기 회장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커네티컷 CT
박용희(상대 83) T: (203)767-8187 yhpntax@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이성숙(가정 74) T: (610)417-4789 ssh1120@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오윤환(공대 56) T: (520)271-2601 youn.oh@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테네시 TENNESSEE (Jan~Dec)
김상호(공대 86) T: (856)386-1094 kimsh@ornl.gov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휴스턴 HOUSTON (Jan~Dec)
구자동(상대 70) T: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하블랜드 IA/MO/KS/NE/AR/OK (Sep~Aug)
이치현(약대 77) T: (913)814-9452 leech@umkc.edu

조지아 GA/AL/MS (Jan~Dec)
김재호(공대 80) T: (404)372-2621 jhkros@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최희택(사대 68) T: (973)610-5857 lee07073@hotmail.com

KyungMoo Kim CPA

김경무 공인회계사

(213) 616-1390
Washing Blvd. #C,
Marina Del Ray, CA 90292
kyungmookim@yahoo.com

- ✓ 세금보고
- ✓ Payroll Service
- ✓ 현지법인 설립 및 업무지원
- ✓ 세금문제 상담 및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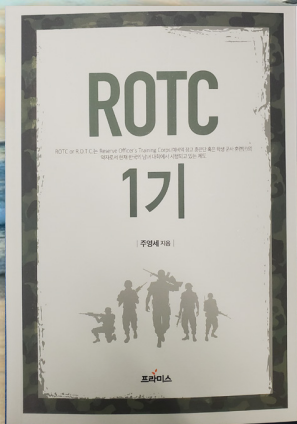


김경무 (공대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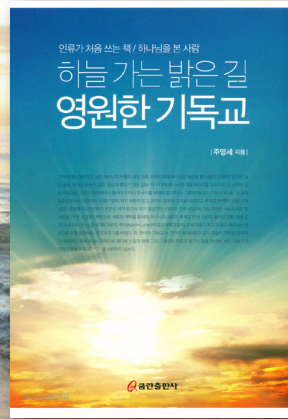
저자: 주영세(사대 59)
현 주영흠 박사 성경연구원 원장

신간서적 출간

문의: 213-220-5644
E-mail: yeongsjyoo@gmail.com
Rev. Yeong S. Jyoo
240 S. Olive St. #207,
Los Angeles, CA 90012-4970



ROTC 1기
ROTC 초창기와 1960년대
우리들의 이야기



**하늘 가는 밝은 길-
영원한 기독교**
하나님을 본 사람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노명호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박찬호(공대 58)



강성진(문 66) 서치원(공 69) 방명진(공 73)



General Financial Group, Inc.

- General Business Credit
- GBC Insurance Solutions LLC
- GBC Premium Finance
- A-ONE Commercial Insurance RRG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대형트럭론

하드머니론

(213) 244-9500

INFO@GFG2001.com

110 E 9TH Street, STE C-900
Los Angeles, California 90079